


2025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 경진대회

國技 태권도의 미래, 바로 대학생 여러분입니다!

본선 발표 자료집

주최/주관

 국회의원 이기현

 태권도진흥재단

일정 2025.08.30.(토)

장소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개 회 사



여름의 끝자락에서, 다가오는 태권도의 날을 맞이하여 '2025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는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재단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미래 세대인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태권도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도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문화를 아우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세계 20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무도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학술경진대회는 태권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K-컬처와의 연계',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태권도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이 제안하는 아이디어 하나 하나는 태권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가 태권도를 어떻게 더 잘 키워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뜻 깊은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멋진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 8월 30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종헌

2025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1.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과 태권도학술대회 창설 4주년을 맞아 청년세대의 태권도에 대한 학문적 인식을 확대
2. 대한민국 국기(國伎)로서의 태권도가 현재 세대에 미치는 학문적 영향을 고찰
3. 청년세대의 시각으로 본 태권도의 미래 방향 연구

나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5년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2. 사업기간 : 2025년 6월 ~ 9월 / 4개월
3. 학술주제 :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0주년 관련
 - ① 태권도진흥재단 주도 태권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
 - ② K-Culture 연계 콘텐츠 개발을 통한 태권도 세계화 기여 방안
 - ③ 태권도진흥재단 20주년과 연계한 주요 태권도 단체 공공서비스 평가 및 혁신 전략
 - ④ 태권도 관련 자유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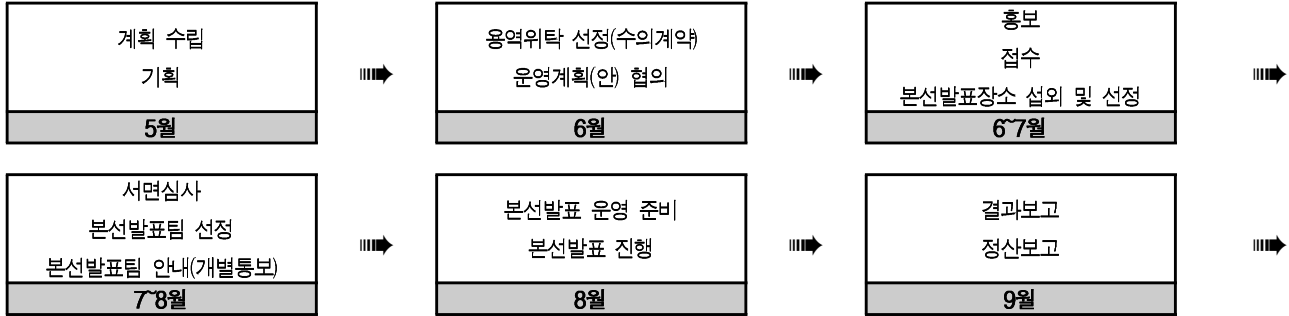
*자유주제 외 ①,②,③ 주제에 대한 별도의 가산점 없음.
4. 참가자격
 - 태권도 전공 또는 체육관련학과·학부 재학생 및 태권도 동아리 소속 학부 재학생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참가서류 제출 당시 신분, 대학생이어야 함.
5. 주최·관 : 국회의원 이기헌, 태권도진흥재단
6. 발표대회 : 2025년 8월 30일(토) 13:30~17:00
7.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다 세부사업내용

1. 추진절차



2. 운영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홍보 및 접수	- 홍보 및 참가자 유치 계획 수립 · 수행 - 발표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포스터 · 초청장 디자인 제작 및 발송 - 현수막 및 배너 등 제작 및 설치 · 철거 - 행사 관련 사항 및 홍보물, 관련 학회·학과에 발송 - 참가자 명단 관리 및 현황 파악 - 참가서류 접수 등 발표자 모집 - 예선 심사(접수된 발표 자료 중 본선 진출자 선정)
기획	- 추진계획 수립 - 일정관리, 주요 참석자(심사자 등) 초청 - 진행순서 작성 및 수행인력 배치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 예산의 항목별 정산내역서 증빙자료 제출 - 행사 종료 후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종합결과보고서 및 발표 자료집 등 기록물 파일(USB 2개) 제출

3. 추진일정

- ① 접수기간: 2025년 6월 30일(월) 09:00부터 8월 1일(금) 18:00까지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③ 서면심사 : 2025년 8월 4일(월)부터 8월 8일(금)까지
- ④ 본선진출자(팀) 발표 : 2025년 8월 11일(월)

***본선진출자(팀)의 경우 팀별 발표자(대표자)에게 개별통보**

4. 서면심사

- ① 심사위원 : 총 5명(학계, 언론계, 지도자, 경기인 등으로 구성)
- ②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등급					심사기준
	A	B	C	D	F	
	10점	8점	6점	4점	0점	
①응모작의 창의성	10	8	6	4	0	연구주제, 목적 및 결과에 대한 독창성 여부
②체계 및 형식의 적합성	10	8	6	4	0	제목, 연구목적, 연구방법, 결론 등의 일치성 및 적합성 여부
③응모작의 논리성 및 구체성	10	8	6	4	0	연구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 여부
④연구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10	8	6	4	0	도구 및 절차의 양적, 질적 타당도 및 신뢰도
⑤연구결과 활용성 및 학문적 기여도	10	8	6	4	0	태권도학계의 발전 및 활용성 정도 및 기여여부
⑥초록 작성	10	8	6	4	0	초록 작성의 적합성 여부
⑦참고문헌의 인용방법	10	8	6	4	0	참고문헌 작성의 적합성 여부

5. 본선진출자(팀) 선정 방법

- ① 서면심사 배점 합계 오름차순 1~6순위자(팀) 선정
- ② 선정 발표자에게 개별통보 및 본선발표 준비 안내

6. 본선발표심사

- ① 심사위원 : 총 7명(서면심사위원 5명, 특별위원 1명, 태권도진흥재단 추천 1인)
- ②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등급					심사기준
	A	B	C	D	F	
	10점	8점	6점	4점	0점	

① 발표 자세	10	8	6	4	0	적절한 언어 사용과 시선 처리
② 발표자료의 완성도	10	8	6	4	0	발표 자료의 체계적 작성 능력
③ 발표내용의 전달력	10	8	6	4	0	발표내용 숙지 수준 및 적절한 설명을 통한 내용 전달력

7. 최종 수상팀 선정 방법

- ① 서면심사 배점 합계 점수와 본선발표심사 배점 합계 점수의 총합계 순위 구분
- ② 1위자 1팀 최우수상, 2-3위자 2팀 우수상, 4-5-6위자 3팀 장려상

2025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본선 발표 논문

발제명	소속	연구자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태권도 자유품새 평가기준 일치도 검증	한양대학교 ERICA	김명연 황수한 김나경
텍스트 마이닝 기반 글로벌 인식분석을 통한 태권도 네트워크 확산 전략 제안 - 태권도진흥재단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방향성 제안 -	아주대학교	허은택 성원준
국가별 문화 분석을 통한 태권도의 글로벌 소비자 맞춤 마케팅 전략 연구	용인대학교	이현진 엄지아 한채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본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	신한대학교	김시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증 및 제도적 개선방안 탐색	화성의과학대학교	이지현 신지훈 최현숙
글로벌 현장에서 길러낸 태권도 사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신한대학교	김하경 신재경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태권도 자유폼새 평가 기준 일치도 검증

김명연(한양대학교ERICA 스포츠과학부)¹⁾ · 김나경(한양대학교ERICA 스포츠과학부) · 황수한(한양대학교ERICA 스포츠과학부)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태권도 자유폼새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추진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한 판정의 공정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KTA) 폼새 심판, 지도자, 현역 선수, 대학교수 및 스포츠과학 연구원으로 구성된 10인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식 대회 1위 수상자의 경기 영상 10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5년 KTA 자유폼새 채점 기준에 따라 7일의 망각 기간을 두고 동일 영상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동일 평가자의 반복 측정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수집된 점수는 카조리 5단계로 범주화한 뒤 교차분석과 카파(Kappa) 계수를 통해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10개 세부항목 중 '조화' ($\chi=0.648$)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판정 일치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기술력 항목인 '동작의 정확도 및 폼새의 완성도' ($\chi=0.059$)와 '뛰어앞차기' ($\chi=0.049$)는 일치도가 거의 없었으며, 연출력 항목인 '창의성' ($\chi=-0.104$), '기의 표현' ($\chi=0.161$), '음악 및 구성' ($\chi=-0.013$) 역시 매우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평가 모두에서 현행 판정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판정 불일치는 심판 개인의 인지적 과부하와 '기백', '창의성' 등 추상적 기준에 대한 조작적 정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폼새 판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AI 기술 도입에 앞서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의 2-패널 시스템처럼 기술과 예술 심판 역할을 분리하여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기계체조의 난도표와 같이 모든 기술과 감점 기준을 명문화한 채점 규정집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AI 동작 분석 기술을 객관적 데이터 제공을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인간-기술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자유폼새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자유폼새, 올림픽종목, 일치도, 심판판정

제출일 : 2025. 08. 01.

심사완료일 : 2025. 08. 30.

1) auddus_kmy@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는 1961년 대한태권도협회와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WTF) 창립을 시작으로 198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식 단체로 승인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경기를 거쳐 1994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태권도는 199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문화 10대 상징(Cooperated Identity) 중 하나로, 2018년에는 국기(國技)로 지정되었다. 2025년 기준 세계태권도연맹은 213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약 2억 명이 수련하고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세계태권도연맹, 2025).

이러한 태권도의 기술체계는 품새, 겨루기, 격파로 구성되어 있다(대한태권도협회, 2025). 그 중 겨루기만이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어 IOC의 신뢰를 받는 핵심종목(Core Sport)으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홍영준, 2022). 그리고 최근에는 품새 종목이 겨루기 종목과 함께 태권도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용주, 2016).

품새는 크게 공인품새, 자유폼새로 구성되며 다양한 발차기 동작과 아크로바틱 기술이 포함된 자유폼새가 특히 주목 받고 있다(방인주, 2020). 자유폼새는 2011년 제6회 세계폼새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2012년 제7회 세계폼새선수권대회, 201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거치며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다져왔고 나아가 세계태권도연맹에 의해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으로 추진되고 있다(세계태권도연맹, 2024).

그러나 자유폼새의 경기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경기 규칙의 미비와 심판 판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승민, 2022). 방인주(2024)는 태권도 품새 경기에서 인간 능력 한계에 따른 판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하명진(2021)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현장의 선수와 지도자들 역시 품새 경기 판정 문제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점 기준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아 심판마다 동일 실수에 대한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태권박스 미디어, 2018a; 태권박스 미디어, 2025b).

이러한 판정 공정성 문제가 반복된다면 자유폼새의 가치가 퇴색되고 태권도 본연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홍영준, 2022). 이는 단순한 경기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 종목의 존속성과 세계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윤수한, 202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종목 채택에 있어 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다.

실제 과거 겨루기 종목이 심판의 주관성 개입 및 일치도 부족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올림픽 정식 종목 퇴출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이하랑, 2025). 이에 세계태권도연맹은 전자 호구 및 영상 기반 판정 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겨루기 종목의 국제적 정당성을 회복해왔다(김두한, 2018; 김경

균, 2020). 하지만 품새 종목은 판정과 관련하여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홍영준, 2022).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종목에서 판정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자유품새 종목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홍영준, 2022). 그러나 예술성과 기술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태권도 자유품새 종목 특성 상 인간 심판이 수행할 수 있는 판단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판정의 주체와 책임에 대한 철학적·제도적 경계 설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박관영, 2020). 따라서 현재의 판정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인간-기계 협업 기반의 새로운 판정 체계 설계를 위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품새가 세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 자유품새 경기 영상을 대상으로 동일 심판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한 판정을 분석함으로써 자유품새 경기의 판정 일치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자유품새 판정 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판정 기준의 보완 및 제도 개선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태권도 자유품새 경기의 평가 항목별 판정 일치도를 분석하기 위해 비확률표본 추출법 중 하나인 유의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10개의 경기 영상을 연구 자료로 KTA(대한태권도협회) 또는 WT(세계태권도연맹)가 주최·공인한 국내외 공식 대회의 17세 이상 성인부 경기였으며, 각 대회 1위 수상자의 경기 영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수집 영상

또한, 모든 영상 자료는 대한태권도협회(KTA)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영상들은 피험자들의 주시험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1'부터 '영상 10'까지 무작위로 라벨링 하였으며, 각 영상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평가 대상의 대회명

	선 수	대회명
영상1	A	2024년도 국가대표선발 최종전
영상2	B	2025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영상3	C	2024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영상4	D	2024년도 세계품새선수권대회 선수선발전
영상5	E	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영상6	F	제58회 대통령기대회
영상7	G	2018 타이페이 세계품새선수권 자유품새
영상8	H	2022 고양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영상9	I	제19회 제주 평가기
영상10	J	2023 춘천코리아오픈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대한태권도협회 품세심판 자격증과 시도 협회 심판 경력을 가진 심사위원 4인, 전문대학교 심사위원 1인, 일선 태권도 관장 및 심사위원 1인, 현역 선수 1인, 대학교수 1인, 스포츠과학 분야 연구원 2인으로 구성되며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심판, 지도자, 선수,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자를 선정한 것은 태권도 품세 판정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시각을 확보하여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특정 그룹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여러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연구 방법론에서 '다각적 검증(Triangulation)'이라 불리며, 연구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전문 심판은 실제 판정 현장의 경험을 지도자는 훈련 현장에서의 실용적 시각을 선수는 판정을 직접 받는 입장에서 생생한 체감을 그리고 교수와 연구원은 이론적·분석적 시각을 제공한다. 이처럼 각 그룹이 가진 고유한 정보와 경험이 어우러져 연구는 한층 풍부하고 심층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구 결과는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향후 판정 기준을 개선하거나 심판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중요한 이점을 가진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약칭	소속	구분
K	전문심사위원	심판
L	전문심사위원	
M	전문심사위원	
N	전문심사위원	
O	전문대학교수	
P	태권도관장	
Q	현역선수	
R	4년제 대학교수	
S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원
T	한국스포츠과학원	

3. 실험설계

다음 <그림 2>은 자유품세 영상 채점 시 대한태권도협회(KTA)의 태권도 품세 경기 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채점 기준은 대한태권도협회(KTA) 2025년 태권도 품세 경기 규칙의 자유품세 채점표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그림 3>는 연구 프로세스이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게 수집된 자유품세 영상을 제공하여 사전-사후 채점을 진행하였으며, 영상의 내용에 대한 주시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7일간의 망각기(조혜수, 2022)를 설정하여 사후 채점을 진행하였다.

영역	세부 기준 항목	예외										합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기술 점 (1.0)	기술의 정확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기술의 다양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기술의 유연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기술의 속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기술의 힘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연출 점 (1.0)	연출의 창의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연출의 표현력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연출의 구성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연출의 완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총합												

그림 2. 2025년 KTA 기준 채점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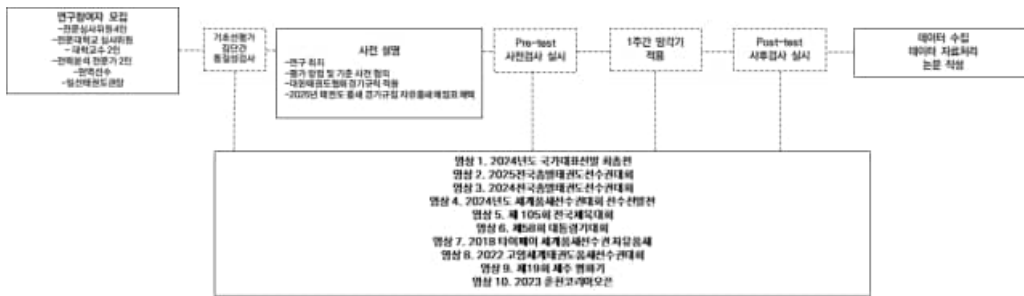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프로세스

4. 자료분석

판정 항목 별 사전실험과 사후실험 결과를 사용하여 카조리 5단계 상대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Cajori(1914) 5단계 상대평가 기준은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 즉, 본 연구에서는 0~1.0점 사이에 값을 가지므로 서열척도로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표준화 방법인 카조리 5단계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신진이, 2019; 조혜수, 전혁수, 2021).

카조리 5단계는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평균+1.5σ 이상이면 매우 우수(7%), 평균+(0.5σ ~ 1.5σ)에 포함되면 우수(24%), 평균 ±0.5σ에 포함되면 보통(38%), 평균+(-0.5σ ~ -1.5σ)범위에 포함되면 미흡(24%), 평균 -1.5σ 이하에 포함되면 매우 미흡(7%)으로 평가한다(표 4). 이러한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점수의 단순 비교를 넘어 수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의미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즉, 연속형 자료인 원점수를 ‘매우 우수’ 부터 ‘매우 미흡’까지의 명확한 서열 척도로 변환함으로써 집단 내 사전·사후 검사 간의 수행 능력 변화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카조리(Cajori) 5단계 평가 기준

등급	평가기준	비율(%)
매우우수	평균+1.5×표준편차 이상	7
	평균+0.5×표준편차 이상	24
우수	평균+1.5×표준편차 미만	38
	평균+0.5×표준편차 미만	
보통	평균-0.5×표준편차 이상	24
	평균+0.5×표준편차 미만	
미흡	평균-1.5×표준편차 이상	7
	평균-0.5×표준편차 미만	
매우미흡	평균-0.5×표준편차 미만	

5.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Windows용 SPSS v.27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평가자의 사전-사후 평가 결과 간 일치도를 분석하고자 교차분석(chi-squared 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판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파 계수(kappa coefficient)를 산출하였으며, 판정 기준은 Landis와 Koch(1977)의 해석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카파 값이 0.00 이하일 경우 ‘매우 낮음(Poor)’, 0.00-0.20은 ‘낮음(Slight)’, 0.21-0.40은 ‘보통(Fair)’, 0.41-0.60은 ‘중간(Moderate)’, 0.61-0.80은 ‘높음(Substantial)’, 0.81-1.00은 ‘매우 높음(Almost Perfect)’으로 해석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카조리 5단계 상대평가 기준 적용 결과

본 연구의 평가 항목별 점수 분포를 바탕으로 Cajori(1914)의 제안에 따라 5단계 상대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Excellent)’, ‘우수(Good)’, ‘보통(Average)’, ‘미흡(Needs Improvement)’, ‘매우 미흡(Poor)’의 5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사전 및 사후 검사에서 획득한 원점수를 토대로 각 시점의 점수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정된 기준이다.

기술적 수행 능력(뛰어엳차기, 회전발차기 등)과 예술적 표현 능력(동작의 정확성 및 완성도, 창의성 등)을 포함한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사전·사후 검사별로 산출된 5단계 상대평가 기준은 아래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 항목을 뛰어차기 계열 기술, 회전 및 연속 동작, 아크로바틱 수행, 그리고 표현 및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해 사전·사후 점수를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뛰어엳차기에서는 전반적인 수행 수준의 향상이 관찰되었다. 사전 평가에서는 매우우수 등급 기준이 0.68 이상이었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0.81 이상으로 높아졌고, 모든 등급의 기준점이 상향 조정되어 기술의 정밀도 및 강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뛰어앞차기에서도 향상된 수행 양상이 뚜렷했다. 사건의 매우우수 기준이 0.88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사후 평가는 0.95 이상으로 상향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동작 완성도를 요구했으며, 중간 등급 또한 전반적으로 점수 구간이 상승하였다.

반면, 회전발차기, 연속발차기, 아크로바틱 동작에서는 사전과 사후 평가의 등급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는 평가 기준의 변화 없이 기술 수행의 안정성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항목들은 사전 단계에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 확보되었거나, 평가 방식의 일치도를 유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작의 정확도 및 폼새 완성도는 사후 평가에서 ‘매우우수’ 기준이 0.90에서 0.91로 소폭 상승하였고, 전체 등급 구간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기술적 완성도의 진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의성의 경우, 최고 등급 기준은 오히려 0.92에서 0.84로 낮아졌으나, 중간 구간의 폭이 조정되며 참여자 전반의 창의적 시도가 다양해졌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조화 항목은 사전과 사후 모두 동일한 점수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기본적인 리듬감이나 연결 동작의 안정성이 꾸준히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의 표현에서는 사후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었으며, 특히 최하위 등급의 하한점이 높아져 전체적인 표현력의 기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음악 및 구성 항목은 사후에 최고 등급의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체 구간이 재조정되어 다양한 표현 방식과 구성의 시도가 평가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다수의 항목에서 등급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특히 뛰어차기 계열에서 수행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항목은 기준 유지 또는 완화 양상을 보였지만, 이는 평가 항목의 특성 및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본 훈련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기술적 완성도, 표현력, 창의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김명연 · 김나경 · 황수한

표 5. 카조리 5단계 적용 후 표준화된 점수의 범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뛰어엳차기	사전	0.68 이상	0.55-0.68	0.43-0.55	0.3-0.43	0.3 이하
	사후	0.81 이상	0.66-0.81	0.52-0.66	0.38-0.52	0.38 이하
뛰어앞차기	사전	0.88 이상	0.62-0.88	0.36-0.62	0.09-0.36	0.09 이하
	사후	0.95 이상	0.66-0.95	0.37-0.66	0.07-0.37	0.07 이하
회전발차기	사전	0.81 이상	0.73-0.81	0.65-0.73	0.58-0.65	0.58 이하
	사후	0.80 이상	0.73-0.80	0.65-0.73	0.58-0.65	0.58 이하
연속발차기	사전	0.75 이상	0.69-0.75	0.63-0.69	0.57-0.63	0.57 이하
	사후	0.75 이상	0.69-0.75	0.63-0.69	0.57-0.63	0.57 이하
아크로바틱 동작	사전	0.77 이상	0.70-0.77	0.64-0.70	0.57-0.64	0.57 이하
	사후	0.77 이상	0.70-0.77	0.64-0.70	0.57-0.64	0.57 이하
동작의정확도 및 폼새완성도	사전	0.90 이상	0.63-0.90	0.35-0.62	0.07-0.35	0.07 이하
	사후	0.91 이상	0.64-0.91	0.38-0.65	0.12-0.38	0.12 이하
창의성	사전	0.92 이상	0.68-0.92	0.44-0.68	0.19-0.44	0.19 이하
	사후	0.84 이상	0.69-0.84	0.55-0.69	0.4-0.55	0.40 이하
조화	사전	0.85 이상	0.69-0.85	0.53-0.69	0.38-0.53	0.38 이하
	사후	0.85 이상	0.69-0.85	0.53-0.69	0.37-0.53	0.37 이하
기의 표현	사전	0.82 이상	0.58-0.82	0.33-0.58	0.09-0.33	0.09 이하
	사후	0.85 이상	0.66-0.85	0.48-0.66	0.29-0.48	0.29 이하
음악 및 구성	사전	0.94 이상	0.63-0.94	0.33-0.63	0.02-0.33	0.02 이하
	사후	0.90 이상	0.64-0.90	0.38-0.64	0.12-0.38	0.12 이하

2. 기술력 항목에 대한 일치도 검증

카이제곱 검정과 Cohen의 카파 계수, Spearman의 순위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자유폼새 항목별 사전·사후 등급 분포 변화와 판정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자유폼새 평가 항목 중 기술력 항목에 해당하는 ‘뛰어엳차기’, ‘뛰어얹차기’, ‘회전발차기’, ‘연속발차기’, ‘이크로바틱 동작’, ‘동작 정확도 및 폼새 완성도’ 항목에 대한 일치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뛰어엳차기 항목은 사전과 사후 평가 간 등급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 = 74.578, p < .001$), Cohen의 Kappa 계수는 0.314로 일치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Spearman 순위 상관계수는 0.725로 강한 순위 일치도를 보였다.

뛰어얹차기는 $\chi^2 = 20.379(p = .20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Kappa 계수는 0.049로 일치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Spearman 순위상관계수는 -0.060으로 사전·사후 간 순위의 일치도가 없거나 역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회전발차기는 $\chi^2 = 117.091(p < .001)$, Kappa=0.526으로 일치 정도가 보통인 수준이었으며, Spearman 계수는 0.826으로 매우 강한 순위 일치도를 나타냈다.

연속발차기의 경우에도 $\chi^2 = 82.951(p < .001)$, Kappa = 0.367로 일치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으며, Spearman 순위상관계수는 0.7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 일치도를 보였다.

이크로바틱 동작은 $\chi^2 = 121.071(p < .001)$, Kappa=0.394로 일치 정도가 낮은 수준, Spearman 계수는 0.728로 강한 순위 일치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작의 정확도 및 폼새의 완성도는 $\chi^2 = 16.545(p = .416)$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Kappa =

0.059로 일치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Spearman 계수도 0.002로 사전·사후 간 순위 일치도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연출력 항목에 대한 일치도 검증

카이제곱 검정과 Cohen의 카파 계수, Spearman의 순위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자유폼새 항목별 사전·사후 등급 분포 변화와 판정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자유폼새 평가 항목 중 연출력 항목에 해당하는 ‘창의성’, ‘조화’, ‘기의 표현’, ‘음악 및 구성’ 항목에 대한 일치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출력 평가 항목 중 창의성 항목은 사전과 사후 등급 간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chi^2 = 14.652, p < .001$), Cohen의 Kappa 계수는 -0.104로 거의 일치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Spearman 순위상관계수는 -0.089로 사전·사후 간 순위 일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화 항목은 $\chi^2 = 174.395(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Kappa 계수는 0.648로 일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Spearman 순위상관계수는 0.890으로 매우 강한 순위 일치도가 나타났다.

기의표현 항목은 $\chi^2 = 55.994(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Kappa 계수는 0.161로 일치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Spearman 계수는 0.308로 사전·사후 간 순위 일치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음악 및 구성 항목은 $\chi^2 = 12.972(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Kappa 계수는 -0.013으로 거의 일치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Spearman 순위상관계수는 -0.047로 사전·사후 간 순위 일치도가 없는 수준이었다.

표 6. 기술력 항목 교차분석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χ^2	kappa	rho
뛰어 앞차기	매우우수	3(3%)	9(9%)	1(1%)	0(0%)	0(0%)	74.578***	0.314	0.725
	우수	1(1%)	14(14%)	6(6%)	0(0%)	0(0%)			
	보통	0(0%)	4(4%)	8(8%)	11(11%)	0(0%)			
	미흡	0(0%)	3(3%)	4(4%)	21(21%)	1(1%)			
	매우미흡	0(0%)	1(1%)	1(1%)	10(10%)	2(2%)			
뛰어 앞차기	매우우수	1(1%)	1(1%)	1(1%)	5(5%)	0(0%)	20.379	0.049	-0.060
	우수	2(2%)	7(7%)	9(9%)	8(8%)	1(1%)			
	보통	1(1%)	10(10%)	11(11%)	9(9%)	1(1%)			
	미흡	3(3%)	6(6%)	6(6%)	8(8%)	2(2%)			
	매우미흡	0(0%)	5(5%)	1(1%)	0(0%)	2(2%)			
회전 발차기	매우우수	4(4%)	4(4%)	0(0%)	0(0%)	0(0%)	117.091***	0.526	0.826
	우수	3(3%)	10(10%)	7(7%)	0(0%)	0(0%)			
	보통	1(1%)	5(5%)	30(30%)	5(5%)	0(0%)			
	미흡	0(0%)	1(1%)	1(1%)	21(21%)	5(5%)			
	매우미흡	0(0%)	0(0%)	0(0%)	2(2%)	1(1%)			
연속 발차기	매우우수	1(1%)	3(3%)	0(0%)	0(0%)	0(0%)	82.951***	0.367	0.755
	우수	2(2%)	22(22%)	13(13%)	1(1%)	0(0%)			
	보통	2(2%)	6(6%)	11(11%)	2(2%)	1(1%)			
	미흡	0(0%)	0(0%)	5(5%)	20(20%)	7(7%)			
	매우미흡	0(0%)	0(0%)	0(0%)	4(4%)	0(0%)			
아크로 바틱 동작	매우우수	6(6%)	1(1%)	0(0%)	0(0%)	0(0%)	121.071***	0.394	0.728
	우수	1(1%)	9(9%)	10(10%)	1(1%)	0(0%)			
	보통	1(1%)	15(15%)	14(14%)	7(7%)	0(0%)			
	미흡	0(0%)	1(1%)	1(1%)	27(27%)	1(1%)			
	매우미흡	0(0%)	0(0%)	1(1%)	4(4%)	0(0%)			
동작의 정확도 및 폼새의 완성도	매우우수	1(1%)	1(1%)	5(5%)	1(1%)	0(0%)	16.545	0.059	0.002
	우수	2(2%)	4(4%)	8(8%)	8(8%)	2(2%)			
	보통	3(3%)	9(9%)	14(14%)	5(5%)	2(2%)			
	미흡	2(2%)	3(3%)	11(11%)	10(10%)	2(2%)			
	매우미흡	2(2%)	3(3%)	0(0%)	1(1%)	1(1%)			

$p < .001$ ***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태권도 자유폼새 평가 기준 일치도 검증

표 7 연출력 항목 교차분석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χ^2	kappa	rho
창의성	매우우수	N/A	N/A	N/A	N/A	N/A	14.652 ^{***}	-0.104	-0.089
	우수	N/A	15(15%)	11(11%)	12(12%)	0(0%)			
	보통	N/A	17(17%)	5(5%)	8(8%)	0(0%)			
	미흡	N/A	14(14%)	3(3%)	5(5%)	3(3%)			
	매우미흡	N/A	5(5%)	1(1%)	1(1%)	0(0%)			
조화	매우우수	N/A	N/A	N/A	N/A	N/A	174.395	0.648	0.89
	우수	2(2.0%)	31(31%)	2(2%)	0(0%)	0(0%)			
	보통	0(0.0%)	14(14%)	21(21%)	4(4%)	4(4%)			
	미흡	0(0.0%)	0(0%)	1(1%)	13(13%)	13(13%)			
	매우미흡	0(0.0%)	0(0%)	0(0%)	1(1%)	1(1%)			
기의 표현	매우우수	0(0.0%)	0(0%)	10(10%)	0(0%)	0(0%)	55.994	0.161	0.308
	우수	7(7.0%)	6(6%)	7(7%)	0(0%)	0(0%)			
	보통	1(1.0%)	3(3%)	21(21%)	10(10%)	10(10%)			
	미흡	4(4.0%)	6(6%)	6(6%)	12(12%)	12(12%)			
	매우미흡	N/A	N/A	N/A	N/A	N/A			
음악 및 구성	매우우수	0(0.0%)	4(4%)	1(1%)	2(2%)	2(2%)	12.972 ^{***}	-0.013	-0.047
	우수	1(1.0%)	5(5%)	9(9%)	10(10%)	10(10%)			
	보통	1(1.0%)	9(9%)	9(9%)	5(5%)	5(5%)			
	미흡	3(3.0%)	10(10%)	9(9%)	12(12%)	12(12%)			
	매우미흡	0(0.0%)	0(0%)	2(2%)	1(1%)	1(1%)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태권도 자유폼새 경기의 평가 항목 별 심판 판정 일치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10인의 연구 참여자에게 10편의 경기를 사전 평가하도록 요청한 후 동일 영상을 7일 뒤에 사후 평가하였다. 이후 수집된 경기 평가 결과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를 카조리 5단계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세부 기준 항목 중 뛰어 옆차기, 뛰어앞차기, 연속 발차기 항목에서 낮은 평가 일치도($\kappa < 0.4$)가 나타나 이를 중점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낮은 일치도가 나타난 세부 기준 항목은 주로 기술력에 해당되며 각각 편 높이, 발차기 수, 최대 연속 발차기와 스텝 수를 평가하기에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평가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 판정 시 사용하는 시각 탐색 전략이 인식 오류와 범주화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Spitz, 2016). 실제로 태권도 폼새 판정에 있어 빠른 동작 채점 오류와 채점 기준의 불분명함이 지적되고 있으며(홍영준, 2022), 세부 감점 기준이 공식 규정이 아닌 지도자 회의 또는 심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Plessner(2005)와 Welchman(2004)의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 따른 높이, 각도의 오차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자유 폼새 판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조적 도구로 AI 기반 동작 분석 시스템과 비디오 판독 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I 기술은 발차기 높이, 각도를 세밀하게 측정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방인주, 2023). 더불어 세부 감점 기준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판정의 일치도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동일한 자유폼새 영상에 대한 반복 판정 결과 총 10개의 세부항목 중 5개 항목에서 평가 일치도가 매우 낮게($\kappa < 0.20$) 나타났으며, 이외 3개 세부항목에서도 낮은 일치도($\kappa < 0.40$)가 관찰되었다. 특히, 기술력 채점 항목 중 ‘동작의 정확도 및 폼새의 완성도’ 항목의 경우 $\text{Kappa}=0.059$, $\text{Spearman}=0.002(p>.05)$ 로 두 판정 간의 등급 일치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영상에 대한 동일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약 5.9% 일치한 것으로 심판 판정 시 인지한 장면과 인상이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아 평가가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정 불일치는 자유폼새 평가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작의 정확도 및 폼새의 완성도’ 항목은 자유폼새 전반 동작의 실용성과 공방간의 연결성의 완성도를 이루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대한태권도협회, 2025). 즉, 다양한 동작들의 흐름을 파악해야하는 인지적 부담이 수반되며 복합 평가로서 개별 장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유폼새의 경우 각각의 심판이 모든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제한된 기억 용량에 더욱 가중되는 인지적 부담으로 판정 간 일치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ranks(1983)의 연구에서 지도자를 대상으로 경기 관찰 실험을 실시한 결과 경기 핵심 정보 중 40%만을 기억하며 주의가 집중되는 일부 순간만을 선명히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과를 제시한 것과 같다.

따라서 자유폼새 판정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태권도 자유폼새 평가 기준 일치도 검증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심판이 모든 세부 항목 별 평가를 진행하는 기존의 구조를 재고하고 항목별 전문 심판을 분리하여 배치하거나 기술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평가 일치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항목들이 연출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출력 항목은 총 4개의 세부 평가로 구성되며 이 중 ‘창의성’, ‘기의 표현’, ‘음악 및 구성’의 3개의 항목에서 매우 낮은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해당 항목의 평가 기준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단어의 모호성이 심판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했기 때문이다(조은형, 2003).

실제로 대한태권도협회(2025)에서 제시한 ‘2025 태권도 품새 경기 규칙’에 따르면, ‘창의성’, ‘기의 표현’, ‘음악 및 구성’ 항목은 각각 수행 동작의 독창성, 기의 숙달에서 나타나는 품격과 위엄, 음악과 안무의 조화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항목들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들—예컨대 ‘독창성’, ‘집중’, ‘기백’, ‘자신감’ 등은 구체적인 행동 지표나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추상적 언어로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백’은 어떤 몸의 움직임이나 얼굴 표정, 또는 음성 표현(기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시하지 않으며, ‘자신감’ 역시 어떤 자세, 시선, 또는 리듬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독창성’의 경우, 기존 동작과의 차별성 또는 기술 구성의 참신성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예시나 범주도 부재하다.

따라서 명확한 채점 기준과 개념을 마련하여 채점자가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채점하여 판정이 일관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Heidari, 2022). 특히 ‘기백’, ‘자신감’, ‘창의성’

등 추상적 개념들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평정척도를 도입하거나 세부 수준 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박재우, 2020).

자유폼새가 겪는 판정의 위기는 이미 다른 심미적 스포츠들이 경험하고 극복해 온 과정이다. 실제로 피겨스케이팅과 기계체조는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요소를 식별하는 ‘기술 패널(Technical Panel)’과 수행의 질과 예술성을 평가하는 ‘심판 패널(Judging Panel)’로 역할을 완벽히 분리하는 2-패널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판 한 명에게 가해지던 인지적 과부하를 구조적으로 해결했다(Franks, 1983; International Skating Union, 2022). 더불어 피겨스케이팅은 ‘예술점수’로 불리던 구성점수를 스케이팅 기술(Skating Skills), 구성(Composition), 표현(Presentation) 등 관찰 가능한 세부 항목으로 조작화하고 기계체조는 모든 기술의 난이도와 감점 기준을 명문화한 ‘난도표(Code of Points)’를 도입하여 평가의 구체성을 확보했다(Olympics.com, 2022; 대한체조협회, 2022).

한편 세계태권도연맹(WT)이 AI 판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IT조선, 2023), 현장 전문가들 역시 AI가 판정의 정교성을 높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김동환, 안근아, 2021).

이를 위해서는 태권도 자유폼새 역시 구조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더불어 AI 기술이 심판 판정을 증강하는(augmenting)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객관적 사실 판단은 기술의 도움을 받고, 인간 심판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의 완성도와 예술적 가치라는 종합적이고 질적인 판단에 집중하는 ‘인간-기술 협업 모델’이야말로 자유폼새가 판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적인 스포츠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이 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자유폼새 경기의 판정 체계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기술력 항목의 경우 '뛰어엎차기', '뛰어앞차기', '연속발차기', '아크로바틱동작', '동작의정확도및폼새의완성도'에서 낮은 판정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출력 항목의 경우 '창의성', '기의표현', '음악및구성'에서 낮은 판정 일치도를 보였다.

객관적 측정이 요구되는 기술 항목과 심미적 판단이 필요한 연출력 항목 모두에서 낮은 일치도를 보인 것은, 현재의 판정 시스템이 인간 심판의 시지각적 오류와 인지적 한계, 그리고 평가 기준의 모호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유폼새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적 판단 개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 항목에서의 정확한 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동작별 정량화된 세부 체점기준과 시지각적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AI 기반 보조 기술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출력 항목의 특성 상 '기백', '자신감', '창의성' 등 추상적 개념이 자의적 해석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추상적 평가 항목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확립과 세부 수준별 평정척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유폼새 판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목별 평가자 분리 또는 기술적 지원 체계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VI. 제언

본 연구는 심사위원, 현역 선수, 대학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10개의 자유 폼새 영상에 대한 사전-사후 체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정 방식은 다각적 검증을 통한 종합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나, 평가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집된 영상이 현장 심사자의 위치와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되어 실제 환경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Plessner, 2005).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실제 심사 현장의 시야 각도와 음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세부적으로 반영한 실험이 진행된다면 더 정확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윤. (2024년 9월 24일). 세계태권도연맹, LA 올림픽 단체·패럴림픽 폼새 정식종목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4111200007>
- 김동환, & 안근아. (2021). 태권도 폼새 경기 판정 공정성 향상을 위한 AI 기술 도입 방안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60(5), 263-277.
- 김두한, 정국현. (2018). 미디어 내용분석을 통한 겨루기 경기의 개선방안. 한국융합과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한 태권도 자유품새 평가 기준 일치도 검증

- 학회지, 7(1), 123-133.
- 김정균, 최광근. (2020). 태권도 겨루기 경기용품의 변천과정. 코칭능력개발지, 22(4), 100-111.
- 대한체조협회. (2022). 기계체조 채점 규정집 2022-2024.
- 대한태권도협회. (2025).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웹사이트 태권도 기술체계.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4>
- 대한태권도협회. (2025). 2025 태권도 품새 경기 규칙 [PDF 파일].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8>
- 박관영. (2020). 태권도 자유 품새 경기에 대한 품새 선수들의 인식과 개선방안 [석사 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재우. (2020). 태권도 자유품새 평가요인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29-39.
- 방인주. (2020). 태권도 자유 품새 회전발차기의 채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8(3), 941-949.
- 방인주. (2023). 인공지능 기반 태권도 동작 분석 기술 동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4(1), 163-170.
- 방인주, 안근아. (2024). 태권도 자유품새 경기의 비디오관독 도입에 관한 필요성. 한국스포츠학회지, 22(3), 523-531.
- 세계태권도연맹. (2025). 세계태권도연맹 공식 웹사이트. <https://www.worldtaekwondo.org/>
- 신진이, 이기혁, 송홍선, 전병오. (2019). 눈-손 협응력과 반응시간의 관련성: 평가 기준 일치도 검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1(3), 47-58.
- 윤수환, 김용은. (2020).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품새경기의 방향 탐색. 국기원 태권도연구, 11(1), 167-189.
- 이승민 & 김기남. (2022). 태권도 자유품새 채점규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국기원 태권도연구, 13(3), 23-32.
- 이용주, 최공집, & 전민우. (2016). 태권도 품새 경기의 변천과정과 향후 과제.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23-32.
- 이하량, 윤경로, & 심영균. (2025). 태권도 시합 판정 보조를 위한 가변 초점 변조 기반 겨루기 동작 인식 시스템. 방송공학회 논문지, 30(3), 449-460.
- 조은형. (2003). 무용 작품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4(2), 143-162.
- 조혜수, 전혁수. (2021). 남자 고등학교 태권도 경량급과 중량급 선수들의 전문체력요인 비교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30(5), 1023-1032. <https://doi.org/10.35159/kjss.2021.10.30.5.1023>
- 조혜수. (2022). 태권도 지각기술훈련이 시각탐색 전략과 예측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서울
- 최민정. (2023년 11월 23일). “태권도 판정에 AI 도입“...WT, 개발 컨소시엄 선정. IT조선.
- 태권박스미디어a. (2018년 4월 30일). 카메라 출동 서성원이 간다 - 품새 채점논란, 해결책 없다? <https://buly.kr/3NJ5JtE>
- 태권박스미디어b. (2025년 6월 15일). [기고] 태권도 품새 경기 발전을 위한 제언. <https://buly.kr/Csk0Hyw>
- 하명진, 강형숙. (2021). 대학 태권도 품새경기

- 의 부정적 심판판정 관련 요인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9(4), 731-741.
- 홍영준, 박상현, & 최유리. (2022). 태권도 품새 경기 판정 공정성 향상을 위한 AI기술 도입 방안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61(6), 427-440.
- Cajori, F. (1914). A new marking system and means of measuring mathematical abilities.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4(4), 283-293.
- Franks, I. M. (1983). *Analysis of human performance*.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International Skating Union. (2022). *ISU Judging System*.
- Heidari, N., Ghanbari, N., & Abbasi, A. (2022). Raters' Perceptions of Rating Scales Criteria and Its Effect on the Process and Outcome of Their Rating. *Language Testing in Asia*, 12. <https://doi.org/10.1186/s40468-022-00168-3>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https://doi.org/10.2307/2529310>
- Olympics.com. (2022). *Figure skating scoring explained*. <https://olympics.com/en/news/figure-skating-scoring-explained>
- Plessner H & Schallies E. (2005). Judging the Cross on Rings: A Matter of Achieving Shape Constancy.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9(9), 1145-1156.
- Spitz, J., Put, K., Wagemans, J., Williams, A. M., & Helsen, W. F. (2016). Visual search behaviors of association football referees during assessment of foul play situations: Principles and implications. *Cognitive Research: Principles and Implications*, 1(1). <https://doi.org/10.1186/s41235-016-0013-8>
- Welchman, A. E., Tuck, V. L., & Harris, J. M. (2004). Human observers are biased in judging the angular approach of a projectile. *Vision Research*, 44(17), 2027-2042. <https://doi.org/10.1016/j.visres.2004.03.014>

텍스트 마이닝 기반 글로벌 인식 분석을 통한

태권도 네트워크 확산 전략 제안

- 태권도진흥재단 중심의 세계화 전략 방향성 제안 -

허은택(아주대학교)¹⁾ · 성원준(아주대학교)²⁾

국문초록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글로벌 대중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태권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튜브에서 'taekwondo'를 키워드로 수집한 댓글 10만여 개 중 영어로 작성된 48,396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감성 분석(VADER)과 토픽 모델링(LDA)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댓글 중 약 38%가 긍정적, 22%가 부정적 정서를 나타냈으며, 긍정적 인식은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와 국제 교류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반면, 부정적 인식은 실전성 부족, 제도적 혼란, 타 무술 대비 열세 등의 이슈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태권도진흥재단 중심의 전략적 대응 방향으로 실전성에 대한 오해 해소 및 콘텐츠 다변화, 글로벌 교육 기준의 표준화, 철학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무도 정체성 강화,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 등의 글로벌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량·정성 기반의 대중 인식 분석을 통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심화시키고 태권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태권도진흥재단 주도 태권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

제출일 : 2025. 8. 1.

심사완료일 : 2025. 8. 30.

1)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20, gjdmsxor@ajou.ac.kr

2)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24, swjevan@ajou.ac.kr

I. 서론

1. 연구 배경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무술이자, 문화 외교 및 정신 교육의 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위상을 넓혀왔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세계태권도연맹(WT)과 태권도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에 보급되며 글로벌 무도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태권도의 세계화가 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와 내실화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한국 무도의 정통성과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략 수립에 앞서, 글로벌 대중이 태권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태권도의 세계화는 수련 인구의 규모, 국가별 도장 수, 국제대회 개최 수 등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태권도에 대한 글로벌 대중들의 실제 인식에 대한 질적 판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글로벌 대중의 인식은 태권도의 문화적 위상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대중이 태권도를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만, 해당 국가나 지역 내에서 자발적인 확산과 장기적인 수련이 가능하다. 반면, 부정적 인식이 누적되거나 오해가 방치될 경우, 태권도의 정체성이 왜곡되거나 수련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콘

텐츠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가 태권도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환경에서는, 대중의 감정적 반응과 인식 흐름을 민감하게 읽고 대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다.

글로벌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은 이제 단순한 정보 유통의 기능을 넘어, 전 세계 대중의 의견, 태도, 감성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태권도와 관련된 수많은 콘텐츠가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댓글과 반응을 통해 대중의 실질적 인식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기반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글로벌 대중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계 시민들이 태권도에 대해 어떠한 감정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를 강화하는 글로벌 확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용자들이 태권도에 대해 갖는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접근성과 사용자 수를 보유한

영상 기반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유튜브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권도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감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적합한 데이터 원천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taekwondo(태권도)’를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 결과 상위 100개 영상을 선정하였다. 이후, 각 영상에 게시된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댓글 정보는 댓글 작성 시점, 작성자, 좋아요 수, 댓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집된 댓글 데이터는 총 109,893 개에 달하며,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대중에 대한 태권도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영어로 작성된 댓글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다 시의성 있는 최신의 대중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댓글 작성 시점이 4년 이내인 경우만을 필터링하여 최종 분석 대상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글로벌 사용자의 최신 반응과 정서를 반영한 텍스트 기반 자료를 확보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 과정

유튜브 댓글 데이터는 자유롭게 작성된 자연어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기계학습 기반 분석 기법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 정제 및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과정에서 사용하는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및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데이터를 전처리하였다.

첫째, 수집된 전체 댓글 중에서 영어로 작성된 댓글만을 선별하였다. 이는 글로벌 대중에 대한 태권도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함과 동시에,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감성 분석 도구인 VADER가 영어 기반의 감성 어휘 사전을 활용하기 때문에,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불필요한 정보 제거를 수행하였다. 이에는 URL, 이메일, 해시태그, 사용자 태그(@username), 특수문자, 숫자 등의 제거가 포함되며, 대소문자 통일(lowercasing)도 함께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텍스트 내 의미 분석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어휘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불용어(stopwords) 제거 작업을 수행하였다. ‘the’, ‘is’, ‘and’ 등 분석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불용어는 제거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 있는 ‘taekwondo’ 역시 빈번하게 등장하여 정보량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사용자 정의 불용어로 추가하여 제외하였다.

넷째, 토큰화(tokenization) 및 필요시 표제어 추출(lemmatization)을 적용하여, 각 댓글을 의미 단위의 단어 목록으로 분해하였다. 수집한 데이터가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해 비지도학습 기반의 머신러닝 모델인 LDA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3. 분석 기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댓글에 내재된 사용자들의 태권도에 대한 인식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과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주요 분석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1) 감성 분석 (Sentiment Analysis)

감성 분석은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작성자의

텍스트 마이닝 기반 글로벌 인식 분석을 통한 태권도 네트워크 확산 전략 제안

주관적 감정, 즉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정서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VADER (Valence Aware Dictionary and sEntiment Reasone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VADER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비정형 텍스트 분석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전 기반 감성 점수 (lexicon-based sentiment scores)를 활용하여 각 문장에 대한 복합 점수(compound score)를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댓글을 세 가지 감성 범주로 분류하였다.

- Compound ≥ 0.05 : 긍정(Positive)
- $-0.05 < \text{Compound} < 0.05$: 중립(Neutral)
- Compound ≤ -0.05 : 부정(Negative)

이를 통해 전체 댓글 중에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댓글을 식별하고, 이후 심화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input	neg	neu	pos	compound
"This computer is a good deal."	0	0.58	0.42	0.44
"This computer is a very good deal."	0	0.61	0.39	0.49
"This computer is a very good deal!!"	0	0.57	0.43	0.58
"This computer is a very good deal!! :-)"	0	0.44	0.56	0.74
"This computer is a VERY good deal!! :-)"	0	0.383	0.61	0.82

그림 1. VADER (Valence Aware Dictionary and sEntiment Reasoner) 알고리즘

2)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

감성 분류 결과 중에서 긍정적, 부정적 의견으로 분류된 댓글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LDA는 주어진 문서 집합으로부터 토픽이라는 잠재 주제들을 추론하고, 각 문서가 어떤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비지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다.

LDA는 문서가 여러 주제로 구성되고, 각 주제는 특정 단어 분포를 가진다는 가정 하에 작

동하며, 다음과 같은 분석 목적에 활용되었다.

-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주제(Topic)의 자동 추출
 - 각 주제의 핵심 단어(keywords) 및 비중 확인
 - 주제별 대표 댓글(대표 사례)의 선정
- 토픽 수는 적절한 수(본 연구에서는 3개)를 설정하였고, 시각화 도구를 통해 토픽 간의 분포 및 상호 관계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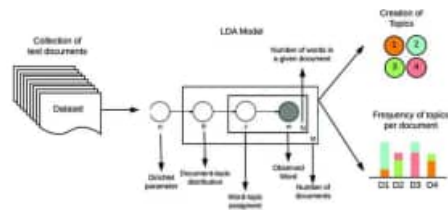


그림 2.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

Ⅲ. 분석 결과

1. 데이터 개요

표 1.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정보

사용한 유튜브 영상 수	:	100 개
수집한 총 댓글 수	:	109,893 개
전처리 후 댓글 수	:	48,396 개

2. 감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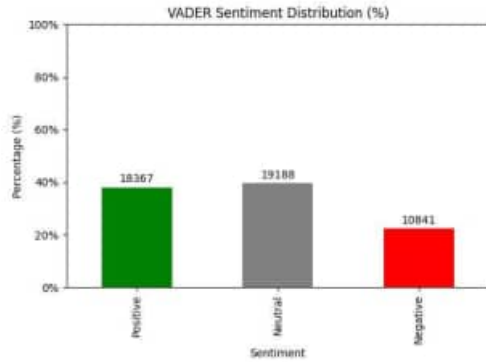


그림 3. VADER 알고리즘을 통한 댓글 감정 비율

태권도에 대한 댓글들의 감정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2. VADER 알고리즘을 통한 감정 비율

긍정적(Positive)	: 37.95 %
중립적(Neutral)	: 39.65 %
부정적(Negative)	: 22.40 %

3. 토픽 모델링 결과

1) 긍정적(positive) 토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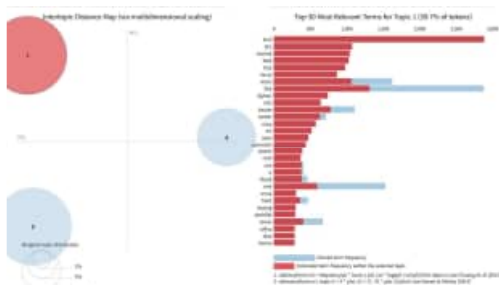


그림 4. 긍정적 토픽1 결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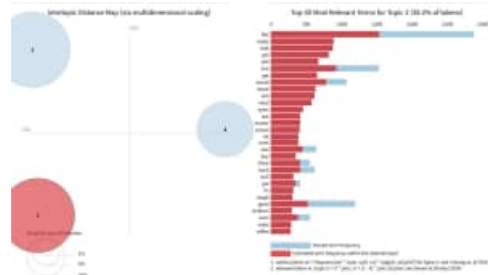


그림 5. 긍정적 토픽2 결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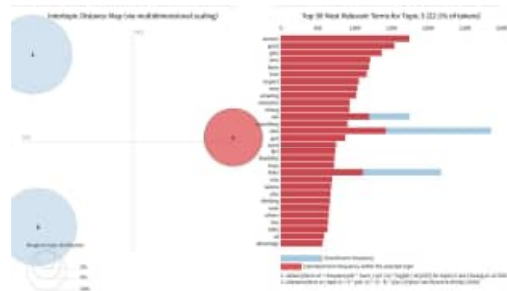


그림 6. 긍정적 토픽3 결과 그래프

2) 부정적(negative) 토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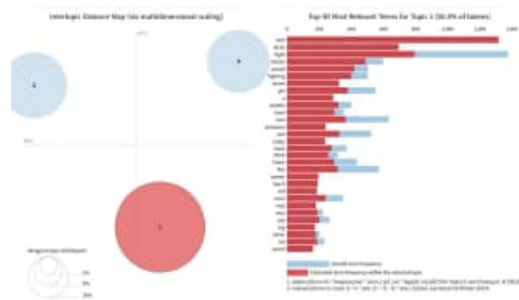


그림 7. 부정적 토픽1 결과 그래프

텍스트 마이닝 기반 글로벌 인식 분석을 통한 태권도 네트워크 확산 전략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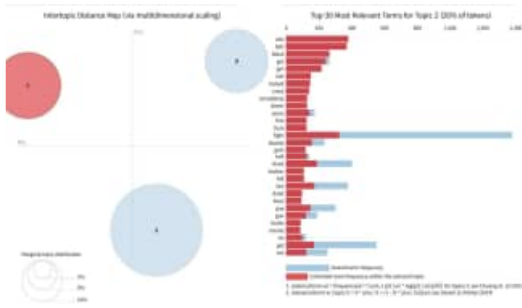


그림 8. 부정적 토픽2 결과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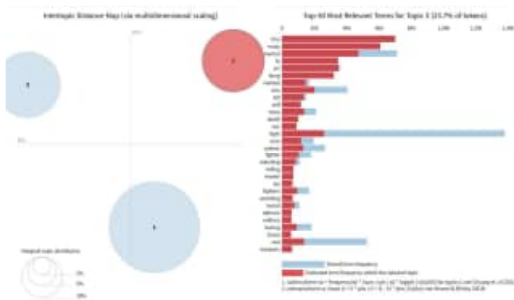


그림 9. 부정적 토픽3 결과 그래프

IV. 논의 및 결론

1. 긍정적 댓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LDA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댓글들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각 유형의 댓글들을 종합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topic 1: “과거와 현재 태권도 수련 체계에 대한 회상과 긍정적 경험 공유”
- topic 2: “무술 간의 기술적 특성과 스타일에 대한 비교와 이해”
- topic 3: “태권도 퍼포먼스 및 무대 예술에

대한 글로벌 감탄과 찬사”

이를 토대로 글로벌 대중들은 태권도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 글로벌 대중들의 태권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키워드

- | |
|---------------------|
| 1. 경험의 한 부분으로서의 태권도 |
| 2.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인식 |
| 3.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확장성 |
| 4. 국제 교류와 연대의 기반 |

2. 부정적 댓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동일하게 LDA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댓글들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각 유형의 댓글들을 종합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topic 1: “태권도 및 유사 무술의 실전성 부족과 시범 중심 훈련에 대한 비판”
- topic 2: “태권도의 실전성 부족 및 타 무술 대비 열세 인식”
- topic 3: “태권도 벨트 체계의 혼란과 제도적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 또는 조롱”

텍스트 마이닝 기반 감성 분석 결과, 전 세계 대중의 태권도 관련 담론에는 긍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비판적 시각과 회의적 반응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부정적 토픽들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글로벌 대중들은 태권도를 부정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 글로벌 대중들의 태권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키워드

- | |
|---------------------------|
| 1. 실전성 부족에 대한 회의 |
| 2. 타 무술과 비교를 통한 상대적 열세 인식 |
| 3. 제도와 교육 체계의 신뢰성 문제 |

3. 태권도의 글로벌 전략적 방향 제언

앞서 감성 분석과 주제 모델링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과정을 통해 확인했듯이, 태권도에 대한 글로벌 대중의 인식은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 또한 포함하고 있는 양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오랜 수련 경험에 대한 자긍심, 무술 간 기술적 이해, 공연 및 문화 콘텐츠로서의 우수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실전성에 대한 회의, 타 무술 대비 열세 인식, 제도적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같은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태권도가 세계 무술 및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긍·부정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수련자 수 확대나 국가 보급에 그치는 것을 넘어, 태권도의 정체성과 강점을 재정 의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실용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태권도진흥재단이 취할 수 있는 ‘태권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분석된 글로벌 대중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강화해야 할 요소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동시에 반영하고자 한다.

1) 균형 잡힌 무술로서의 태권도 정체성 강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나 시범용 무술을 넘어, 철학과 문화가 융합된 종합 무도다. 실제로 글로벌 대중은 태권도를 통해 개인의 성장 경

험,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문화적 콘텐츠로서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는 국제 교류와 문화적 연대의 기반으로 기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련자 수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력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중이 태권도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인식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실전 무술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 타 무술(예: 무에타이, 유도, MMA 등)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기술적 열세로 인식되는 문제, 국가·도장·단체별 교육 체계와 승단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신뢰성 부족과 정체성 혼란이다. 이는 결국 태권도가 “기술은 화려하나 실제적이지 않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식의 평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으로 태권도의 정통성과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시범을 통한 시각적 콘텐츠는 여전히 강력한 홍보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만큼 태권도 시범 공연은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는데 매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도 퍼포먼스에만 치우친 태권도 콘텐츠가 실전성과 관련된 부정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시범 위주의 콘텐츠는 많은 대중들에게 인상적일 수 있으나, 실전성과 구조적 통합성을 중시하는 일부 입장에서는 태권도를 ‘비실용적 퍼포먼스 무술’로 단정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는 이제 무술적·철학적·제도적 균형성을 포괄하는 정체성 재정립을 통해,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글로벌 무도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전략적 전

텍스트 마이닝 기반 글로벌 인식 분석을 통한 태권도 네트워크 확산 전략 제안

환이 요구된다.

(1) 실전성에 대한 오해 해소와 기능적 균형 홍보

태권도는 화려하고 멋진 발차기로 유명하지만, 이는 곧 손기술이 빈약하다는 오해로 이어진다. 하지만 품새와 고단자 수련, 호신술 구성 등을 살펴보면 손기술 또한 체계적으로 훈련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 시범 콘텐츠를 넘어 실전 응용 예시 기반 콘텐츠의 개발 및 훈련
- 호신술, 품새 응용, 실제 거리와 상황별 전투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실전 시나리오형 교육 콘텐츠 강화

(2) 단일화된 기준과 교육 체계의 국제 표준 확립

태권도의 승급 체계와 교육 과정이 도장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대중들이 태권도 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 분석을 통해 파악이 되었다. 태권도의 승급 체계와 교육 과정이 국가 및 도장의 자율에 맡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태권도의 글로벌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세계태권도(WT) 또는 태권도진흥재단(TPF)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 표준안 및 커리큘럼을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확장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3) 철학성과 문화성 중심의 정체성 재정의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 기술이나 체력 단련의 수단을 넘어, 인간의 인격과 정신을 함께 수련하는 종합 무도(武道)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로 대표되는 ‘태권도 5대 정신’은 태권도 수련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 가치로, 이는 단순한

구호나 교훈을 넘어서 도장에서의 수련 경험 속에 실제로 구현되고 내면화되는 인성 교육 체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신적 수련은 단순히 체계적인 커리큘럼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도장에서 관장님과 사범님의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전수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교육 구조를 갖는다. 태권도장에서는 기술을 지도하는 것과 동시에, 존중과 배려, 인내와 책임감, 공동체 의식 등 인격 형성에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일상적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이는 오늘날 다수의 무술 및 스포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태권도만의 독보적인 교육 문화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수련자 비중이 높은 태권도의 특성상, 도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을 넘어 제2의 인성 교육장으로 기능해왔다. 세계 각국의 도장에서도 이러한 교육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글로벌 대중에게는 태권도의 철학적 깊이와 인성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화려한 발차기’, ‘퍼포먼스 중심 스포츠’ 등의 이미지에 가려져, 태권도의 본질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태권도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단지 격투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왜 태권도가 인류 사회에 필요한 무도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기술과 인격을 함께 수련하는 도(道)의 가치, 그것이 바로 태권도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글로벌 무도로서 지속 가능한 위상을 확립하는 핵심 열쇠다.

2)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의 글로벌 확대

허은택, 성원준

최근 국내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는 태권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5년 7월 춘천에서 열린 대한태권도협회(KTA) 주관 박람회는 전국 각지의 도장 운영자, 지도자, 태권도 수련자, 그리고 가족 단위의 일반 관람객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본 행사는 KTA 소속 전문 강사 39명이 참여한 맞춤형 특강 및 1:1 컨설팅, 40여 개 태권도 관련 기업의 운영 솔루션 전시, 태권도 시범 공연 및 체험형 콘텐츠 등 교육, 산업, 문화가 융합된 종합 박람회로 구성되어, 태권도의 매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박람회는 단순한 산업 전시회를 넘어, 태권도 종사자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장이며, 일반 대중들에게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가상현실 기반의 버추얼 태권도 대회, 스피드 발차기 챌린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토크쇼, 전문가 강연과 도장 경영 솔루션 컨설팅 등은 태권도의 실용성과 미래지향적 기술을 동시에 조명하며, 태권도의 기술적 완성도와 교육 콘텐츠의 수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제 이러한 박람회가 갖는 가능성과 파급력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 무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의 세계화가 양적 확산을 넘어 질적 확장을 지향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글로벌 태권도 교육·산업 박람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의미적이다.

첫째, 글로벌 대중에게 태권도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긍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단순한 영상 콘텐츠나 시범 공연이 아

니라, 현장에서 직접 태권도를 배우고, 장비를 착용해보고, 기술을 체험하며 ‘참여형 소비자 경험’을 통해 감정적 유대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과 융합된 미래형 태권도 콘텐츠를 시연함으로써, 태권도가 단지 전통 무술이 아니라 기술 진보와 함께 진화하고 있는 현대적 스포츠 무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일례로 최근에는 스켈레톤 기반 다시점 동작 인식 방식을 통해서 체점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시도 등 첨단 기술을 태권도에 융합하려는 움직임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실전성 논란이나 단조로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술적 완성도에 기반한 경쟁력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전 세계 태권도 종사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와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연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다양한 국가의 관장, 사범, 지도자, 산업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태권도 교육 콘텐츠, 운영 시스템, 시장 트렌드 등에서 상호 보완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넷째, 박람회에서의 직접적인 무술 간 비교 체험을 통해, 태권도만의 고유한 매력(예를 들어 정확성과 속도 중심의 발기술,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 철학적 수련 구조 등)을 대중이 스스로 체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이상의 설득력 있는 홍보 전략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KTA, WT, 태권도진흥재단 등 주요 기관이 협력하여 대륙별 순회 박람회 개최, 국제 스포츠 및 교육 박람회 내 태권도관 독립 운영, 국제협력도장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 시연 행사 등 전략적 글로벌 확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 구성과 현지 태권도 커뮤니티의 참여

텍스트 마이닝 기반 글로벌 인식 분석을 통한 태권도 네트워크 확산 전략 제안

보장을 통해 문화 교류형 글로벌 태권도 페스티벌로 발전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태권도장 교육·산업 박람회의 글로벌 확대 전략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 산업적 지속 가능성 확보, 문화적 브랜딩 고도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태권도의 긍정적 인식 요소(문화 콘텐츠로서의 확장성, 기술적 완성도, 연대의 기반)을 결집하여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무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라성룡, 이승훈, 정회룡(2022-11-09). 태권도 데이터셋을 활용한 스켈레톤 기반 다시점 동작 인식.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제주.
- 반은아, 반은아(2023). 글로벌 문화콘텐츠로서 태권도공연의 대중화 방안. 대한무도학회지, 24(4), 63-74.
- 이정규(2016). 태권도 품새 경기 채점방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 장권, 최유리(202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태권도 격파경기의 사회적 인식 변화 및 발전 방안 연구. 세계태권도문화학회, 15(4), 35-54.

국가별 문화 분석을 통한 태권도의 글로벌 소비자 맞춤 마케팅 전략 연구

이현진(용인대학교)¹⁾ · 엄지아(용인대학교) · 한채린(용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태권도의 글로벌 시장 확장에 있어 국가별 문화적, 정치·경제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소비자 행동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화적 가치관(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지역 문화권(서구권, 동아시아권, 중남미권), 정치·경제 상황(선진국 vs 개발도상국)을 주요 분석 틀로 설정하여, 문헌 기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소비자 특성과 수련 동기, 접근 채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문화권의 소비자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동기와 선호하는 마케팅 요소가 뚜렷하게 상이하며, 이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서구권 소비자는 자기표현과 성취 중심 콘텐츠에 반응하며, 동아시아권은 제도화된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 요소를 중시하고, 중남미권은 공동체 기반 신뢰와 스타플레이어 중심 마케팅에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가격 민감도와 공공 프로그램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며, 선진국은 프리미엄 브랜드 및 웰빙 콘텐츠 기반 마케팅 전략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태권도의 세계적 확산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권도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태권도, 글로벌 마케팅, 소비자 행동, 문화권 비교, 지역 전략, 문화적 가치, 맞춤형 마케팅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verse consumer behaviors across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their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o propose customized marketing strategies for Taekwondo's global expansion. The research utilizes a qualitative, literature-based approach, categorizing the analysis into three key dimensions: cultural values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regional cultural zones (Western, East Asian, Latin American), and political-economic contexts (developed vs developing countries). The findings reveal that motivations for Taekwondo participation and preferred marketing strategies vary significantly by region. Western consumers emphasize self-expression and achievement, East Asian consumers value institutional credibility and social harmony, and Latin American consumers respond well to community-based trust and star-player branding. In developing countries, cost-sensitive and public program-based approaches are effective, while in developed countries, premium brand positioning and wellness-oriented strategies are more suitable.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localized, culturally sensitive marketing strategies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building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global Taekwondo industry.

Keywords: Taekwondo, Global Marketing, Consumer Behavior, Cultural Comparison, Regional Strategy, Cultural Values, Customized Marketing

제출일: 2025.08.01.

심사완료일: 2025.08.30.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로서, 1,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며,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태권도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200여 개국에서 수련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하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태권도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의 스포츠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영향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국가에서 이를 배우고 수련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은 단순히 태권도의 인지도를 높인 것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소비자 행동을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태권도의 소비자는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에 대한 참여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아실현과 개인의 성취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도 태권도 소비자의 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각 국가별 소비자 특성에 맞춘 마케팅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태권도의 마케팅 전략을 주로 일률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국가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여, 태권도의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태권도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의 소비자 행동을 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태권도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포용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태권도의 글로벌 소비자 맞춤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태권도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의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문화적 배경과 소비자 행동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태권도의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고자,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각국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고, 문화적 차이가 태권도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태권도의 해외 시장 확장에서 마케팅 전략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각 국가에서 태권도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국가별 문화적 특성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경제적 수준, 교육적 배경 등이 태권도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태권도의 소비자층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태권도의 해외 시장 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장벽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태권도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며, 태권도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태권도의 글로벌 소비자 맞춤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태권도의 세계화와 글로벌 스포츠 시장의 발전, 문화적 차이, 그

리고 스포츠 마케팅 전략 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급격히 세계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스포츠 시장의 동향과 태권도의 국제적 확장이 중요한 연구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행동 이론을 통해 각국의 문화적 특성이 태권도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다.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은 국가 간 문화 차이를 6개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각국의 소비자 행동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Hofstede, 1980). GLOBE 연구는 Hofstede의 이론을 확장하여 9개의 문화적 차원을 제시하며, 글로벌 스포츠에서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분석하고, 현지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House et al., 2004). Schwartz의 가치 이론은 문화마다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가치관이 소비자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Schwartz, 1992).

또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 이론은 스포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공한다(Mullin et al., 2014). 마지막으로, 글로벌 현지화와 표준화 전략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화 전략은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표준화 전략은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태권도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서 두 전략의 상호작용과 효과적인 적용을 탐구한다(Levitt, 1983).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본 연구는 태권도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 기준 및 틀 설정

본 연구는 국가별 태권도 소비자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적 가치관, 지역 문화권, 정치·경제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각 기준에 따라 소비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비교하였다. 문화적 가치관 기준은 Hofstede(2011)의 문화 차원 이론을 중심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분하였고, Triandis(1995)의 자기 개념 이론과 Markus &

Kitayama(1991)의 자기표현 성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지역 문화권 기준은 서구권, 동아시아권, 중남미권이라는 대표적 지리·문화 구분을 통해 각 지역의 스포츠 수용 성향과 태권도 인식, 소비자 접근 방식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정치·경제적 기준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경제적 제약, 정부 정책, 체육 인프라 차이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스포츠 마케팅 전략 이론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지화(localization)와 표준화(standardization) 전략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에 기반한다.

2. 자료 수집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문헌 기반의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연구 자료는 선행 학술 논문, 산업 보고서, 국제기구의 발표 자료, 태권도 관련 통계 및 정책 문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이후 발표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문화권별 소비자 행동 분석과 관련하여 Hofstede Insights, IBISWorld(2023), LinkedIn(2024), MarketReport.io(2023) 등의 데이터와 더불어, Pan(2024), Ramirez(2017), Gonzalez & Ramirez(2022) 등의 정성적 연구 결과도 함께 활용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구권(미국, 영국 등), 동아시아권(한국, 중국, 일본), 중남미권(멕시코, 브라질 등), 그리고 개발도상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국가 또는 지역의 소비자 특성과 태권도 수용 양상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3. 분석 절차 설명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분석 기준에 따라 국가별 소비자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서구-동아시아-중남미’, ‘개발도상국-선진국’이라는 기준 하에 각 문화권의 소비 성향, 태권도 인식, 수련 동기 및 채널 선호 방식 등을 문헌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다. 둘째, 각 소비자 유형별로 마케팅 전략의 차별적 접근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소비자에게는 자기표현 중심의 맞춤 콘텐츠 제공이 중요하고, 집단주의 소비자에게는 공동체 기반의 신뢰 전략이 효과적인지 등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소비자 유형과 전략적 요소를 종합하여 국가별 맞춤 마케팅 전략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은 태권도의 글로벌 시장 확장 과정에서 문화적 적합성과 마케팅 효율성 간의 균형 점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III. 연구결과

1. 국가별 문화적 가치관 기준에 따른 소비자 특성 비교

1) 개인주의 문화권 소비자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한 소비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욕구와 선호를 우선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문화권의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서서 자기표현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Markus & Kitayama, 1991). 즉, 소비자는 자신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개인주의 소비자들은 맞춤형(customized) 혹은 개별화된 제품, 독창적인 디자인, 그리고 자기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고유한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선호를 나타낸다.

더 나아가, 개인주의 문화권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 즉 자기결정권을 매우 중시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다양한 옵션 가운데에서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소비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Triandis, 1995). 미국이나 유럽 등 대표적인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심지어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서비스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개인주의 특유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 소비자들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은 기존의 틀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브랜드,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이 반영된 마케팅 메시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Kim & Drolet, 2003). 따라서 기업들은 개인주의 문화권 시장에서 개별화와 자기표현을 강조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과 충

성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Hofstede(2011)는 개인주의를 ‘자기 자신과 직계 가족에 중점을 둔 문화’로 정의하며, 이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욕구 충족과 선택의 자유가 중요한 소비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주의 문화권의 소비자들은 사회적 압력이나 집단의 기대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에 따라 소비 활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권 소비자는 독립성과 자기표현을 중시하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맞춤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아 개인의 선택과 개성을 존중하는 소비 환경에서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집단주의 문화권 소비자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공동체와 집단 내 조화를 매우 중시하며,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가족, 친구, 조직 등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의 기대와 규범에 부합하는 소비를 선호하며, 집단의 가치와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소속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집단주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조화와 일체감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의 소비자는 사회적 인정과 집단 내 지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에 따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소비 행태가 두드러진다. 이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의 조화와 상호 의존성에 대한 문화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된다(Triandis, 1995).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가 집단 내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며, 권위 있는 집단 구성원이나 리더의 의견이 소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Hofstede, 2011).

더 나아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소비 결정 과정에서 집단의 의견이나 권위자의 권고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소비자가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기대를 우선하는 태도를 반영하며, 집단 내 조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 또한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집단 중심의 메시지와 사회적 연계성, 신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Hofstede(2011)는 집단주의를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로 정의하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의

조화와 일체감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 행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집단주의 문화권의 소비자들은 개인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적 행위로서 소비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결론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 소비자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며, 집단의 가치와 기대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와 연계된 마케팅 전략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 문화권 기준에 따른 소비자 특성 비교

1) 서구권 소비자

(1) 서구권의 스포츠 및 무도 수용 성향

서구권은 개인주의와 성취 지향적 가치가 강한 문화권으로, 무도 역시 경쟁적 스포츠로 수용되는 경향이 크다. Hofstede(2010)의 문화 차원 이론에 따르면 서구권은 개인주의 지수(Individualism Index)가 높고, 권력 거리(Power Distance Index)는 낮은 특성을 지닌다. 이는 태권도와 같은 무도의 위계적 훈련 체계보다는 자율성과 자기주도적 참여를 더 선호함을 시사한다.

Zeng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 청소년 태권도 수련자들은 수련 동기로 ‘재미(fun)’, ‘기술 습득(develop skills)’, ‘신체 관리(shape body)’ 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전통적 철학이나 예절보다는 경쟁성과 성취 중심의 수련 목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 태권도에 대한 인식 및 수련 목적

서구권에서 태권도는 주로 올림픽 스포츠 또는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식된다.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수련 비율이 높으며, 이들은 태권도를 통해 집중력, 자기통제력, 자신감을 기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다(Budd, 2013). Bell & Chang(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태권도 수련자들이 수련을 통해 자기통제력(self-control), 집중력(concentration), 불안 감소(anxiety reduction) 등의 심리적 효과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성 수련자는 자기방어(self-defense) 및 자존감 향상, 남성 수련자는 기술 연마와 체형 개선에 더 큰 동기를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Zeng et al., 2015).

① **자녀 교육 수단:** 부모들은 자녀의 자기통제력, 자신감, 집중력 향상 등의 심리적 성장 목적에서 태권도 도장을

을 선택한다.

② **성인의 자기관리:** 성인 수련자들은 태권도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피트니스 유지, 유연성 강화 등을 기대한다.

③ **사회적 소속감:** 커뮤니티 중심의 도장 문화는 정서적 유대와 일체감을 제공하며, 타 무술 대비 높은 유지율을 보인다.

④ **문화적 체험:** 일부 수련자들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정신(예절, 인내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기도 한다.

(3) 서구권 소비자의 선호 채널 및 접근 방식

서구권 소비자들은 디지털 친화적이며 시각적 자극이 강한 콘텐츠에 높은 반응을 보인다. 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태권도를 소개하거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태권도 기술 시연 영상, 성공적인 선수 인터뷰, 다이어트 및 피트니스 결합 프로그램(Kickfit, Cardio TKD 등)이 소비자에게 높은 흥미를 유발한다. 이는 기술적 우수성과 경쟁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문화적 부담 없이 태권도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동아시아권 소비자

(1) 동아시아권의 스포츠 및 무도 수용 성향

한국은 태권도의 발상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태권도를 제도화하였고, 학교, 군대, 경찰, 직장 체육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수련이 이루어진다. 한국인의 높은 집단주의 문화는 무도 단체 활동의 지속성과 조직 내 위계 존중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태권도의 제도적 성장에도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은 전통 무술(쿵푸, 태극권 등)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반면, 태권도는 보다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스포츠로 수용된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수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보다 신체 발달 및 사회성 함양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본은 무도를 ‘도(道)’의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유도, 가라테 등 자국 전통무도가 중심이지만, 태권도도 정신 수양과 인격 수련의 도구로 점차 수용되고 있다. 이는 무도 전반에 걸친 교육적 관점과도 연결된다.

(2) 태권도에 대한 인식 및 수련 목적

한국 고등학생 수련자들은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에 기반해 태권도 참여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충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중국 초등학생 대상 연구(Pan, 2024)에 따르면, 태권도 수련은 자기효능감 향상 및 사회적 기술 개발에 긍정적 기여를 하며, 보호자들은 태권도를 “예절 교육+ 체육 활동”으로 인식한다. 일본은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이 진로 및 직업 목표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수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3) 동아시아권 소비자의 선호 채널 및 접근 방식

한국은 공교육과 체육 정책을 통한 접근이 강하며, 학교 태권도, 방과 후 수업, 군대 의무 수련 등 공공 시스템 기반 확산 구조가 특징이다.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은 교재, 영상 콘텐츠,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 중이다. 중국은 사설 도장 중심이며, 경쟁보다는 ‘예절 교육’에 초점을 두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 채널(위챗, 틱톡 등)을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일본은 도장 중심의 전통 무도 문화가 여전히 강력하며, 멘토-제자 관계 기반의 수련이 일반적이다. 공식 협회 인증 프로그램이나 연수회가 주요 홍보 경로로 활용된다.

3) 중남미권 소비자

(1) 중남미권의 스포츠 및 무도 수용 성향

중남미권에 태권도는 1969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도입되었으며, 멕시코를 포함해 아르헨티나,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 꾸준히 수련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스포츠 시장에서 태권도의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다. 특히 브라질 등에서는 브라질리언 주짓수(BJJ)가 무술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태권도의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태권도는 중남미에서 주로 경쟁 스포츠이자 자기개발 활동으로 인식되며, 복싱, 유도 등 전통 무술과 비교했을 때 아직은 틈새시장에 머물르고 있다. 이러한 수용도의 제한은 중남미 전통 무술 선호, 인프라 부족, 성인층 및 프로 수준 경쟁 인프라 미흡, 그리고 MMA 등 실전 중심 무술의 인기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

(2) 태권도에 대한 인식 및 수련 목적

중남미권 수련자들은 태권도를 통해 신체 건강, 체력 향상, 자기방어 능력 증진을 기대한다. 멕시코 청소년들의 경우 태권도 수련이 자존감 향상과 정서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amirez, 2017; Garcia & Gomez, 2019). 또한, 태권도 수련은 가족과 친구 등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과 동기 유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활동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Gonzalez & Ramirez, 2022). 그러나 중남미에서 태권도의 수련 목적은 교육적 체험이나 건강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동아시아권과 달리 고강도 경쟁이나 진로 연계형 수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3) 중남미권 소비자의 선호 채널 및 접근 방식

중남미권에서는 태권도 확산이 주로 민간 도장과 커뮤니티 클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나 국가 차원의 공식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 축제, 체육 대회, 시범 행사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사례가 많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자체 콘텐츠의 전문성이나 다양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르고 있다.

3. 정치·경제적 상황 기준에 따른 소비자 특성 비교

1) 개발도상국 소비자

개발도상국에서는 태권도가 주로 사회 통합과 청소년 교육, 그리고 건강 증진 수단으로 활용되며, 경제적 제약이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필리핀의 경우, 태권도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MarketReport.io, 2023). 태권도 수련생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하며, 이들은 수련 비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저비용 태권도장과 공공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주요 수련 장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태권도장이 선호된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태권도 소비자 간 경제 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다(NielsenIQ, 2023). 정부는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역별 태권도장의 가격 및 서비스 품질 차이가 크다. 소비자들은 가격과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저렴한 수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인도네시아 태권도 시장의 다층적 구조를 형성한다. 베트남 또한 경제 성장과 함께 태권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이 다수를 차지한다(MarketReport.io, 2023). 정부는 태권도를 청소년 교육과 시민 건강 증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태권도장 선택 시 비용 부담을 크게

고려하며,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도장을 우선적으로 찾는다. 개발도상국 소비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높으며, 정부의 체육 정책과 공공 프로그램이 태권도 보급과 수련 환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예를 들어 청소년 교육과 사회 통합 기능이 소비자의 태권도 참여 동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 선진국 소비자

선진국에서는 태권도가 건강 증진과 자기개발,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자리 잡아 소비자들의 수련 동기가 다양하고 비교적 고급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태권도는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강한 체력 향상과 인성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IBISWorld, 2023).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주요 소비자로서, 이들은 시설의 품질, 전문 강사의 역량, 그리고 프로그램의 차별화에 큰 가치를 둔다. 이에 따라 태권도장 선택 시 가격보다는 교육의 질과 서비스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미국 태권도 협회(USA Taekwondo)의 정책과 지원은 태권도의 대중화뿐 아니라 고급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일본에서는 전통 무도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 태권도가 스포츠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육성되고 있다(LinkedIn, 2024). 일본 내 태권도 수련생은 도시 거주자 중심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이며, 이에 따라 가격 민감도는 낮은 편이다. 소비자들은 태권도 교육 커리큘럼의 체계성과 도장의 브랜드 신뢰도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특성은 일본 정부의 스포츠 및 무도 진흥 정책과 맞물려 태권도 수련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에서는 스포츠 클럽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태권도는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LinkedIn, 2024). 독일 소비자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공공 스포츠 지원 정책으로 인해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이 태권도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은 태권도장 선택 시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모두 고려되는 소비 패턴으로 나타난다. 종합하면, 선진국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시설의 수준,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에 큰 가치를 두는 반면, 가격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각국 정부의 스포츠 및 무도 진흥 정책이 태권도 수련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동시에 촉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 문화적 가치관 기준에 따른 마케팅 전략

1) 개인주의 문화권 마케팅 전략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독립성, 자기결정, 자기표현이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Hofstede, 2011).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소비자 행동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Markus and Kitayama(1991)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자기 개념이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자아 인식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자아 중심적 소비 성향은 태권도와 같은 스포츠 선택에도 반영된다.

첫째, 개인주의 문화권 소비자는 수련 목적을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와 발전에 둔다. 이에 따라 태권도 마케팅 전략에서는 성과 기반의 프로그램 구성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성인 대상 피트니스 태권도 프로그램은 체력 향상이나 다이어트와 같은 개별적 목표 달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퍼스널 코칭 시스템이나 자기주도적 수련 플랫폼은 이러한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스토리텔링 기반 정서적 연결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왜 나는 태권도를 선택했는가'와 같은 개인 서사 중심의 콘텐츠 마케팅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SNS나 유튜브를 활용한 1인 미디어 기반 브랜딩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강력한 설득 도구로 기능한다.

셋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개인주의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기반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경쟁력 있는 전략이 된다. 개별 수련자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구성된 콘텐츠나 1:1 온라인 피드백 기능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이러한 전략들은 개인주의 문화권 소비자 특성에 기반한 마케팅 접근 방식으로서,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과 정체성 유지라는 이중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2) 집단주의 문화권 마케팅 전략

집단주의(collectivism)는 개인보다 집단의 조화와 소속,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의미하며,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아랍 국가 등이 대표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다(Hofstede, 2011). 이러한 문화적 맥락에서 소비자는 개인의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가족, 단체, 사회

집단의 기대와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Triandis, 1995). 따라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과 공동체의 가치가 태권도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핵심 요소가 된다.

첫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패밀리 태권도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 단위 참여형 수련 과정이 효과적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가족 내 유대감 형성을 돕고, 집단의 조화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적합하다. 또한 학교, 지역사회 등 사회적 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체 등록 시 할인 혜택 제공 등 집단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둘째, 집단주의 문화권 소비자는 권위 있는 인물이나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He & Li, 2011). 이에 따라 태권도장의 사범 및 관장과 같은 권위자의 전문성 홍보, 공신력 있는 체육단체와의 공식 협력 관계 표명은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작용한다.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 재직’ 또는 ‘공식 협회 인증 도장’ 과 같은 인증은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인정과 비교를 중시하는 특성에 맞추어 승급 심사, 시범 대회 참가 등 공식적 평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는 수련생의 성취를 집단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강화하며, 이는 다시 수련 지속성과 충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수련 성과 공유, 우수 수련생 인터뷰 공개 등은 집단주의 소비자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결론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가치와 권위 신뢰, 사회적 비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태권도 확산과 브랜드 충성도 강화에 필수적이다. 전통적 가치인 예의, 질서, 단결 등 태권도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집단주의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5. 지역 문화권 기준에 따른 마케팅 전략

1) 서구권 마케팅 전략

서구권 태권도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술 전수 이상의 관계 중심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은 수련자와 가족의 정서적 결속을

강화하고, 도장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된다.

(1) **등급제 회원제 도입:** 수련자에게 명확한 목표와 진전 단계를 제공할 수 있다. 일정 수련 기간 또는 성취 기준에 따라 유니폼, 띠, 수련 가방 등 실질적인 보상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내재적 동기 강화뿐 아니라 브랜드 로열티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Ko et al., 2010).

(2) **리워드 시스템:** 출석, 수련 과제 수행, 지역 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상품 또는 혜택으로 환산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수련자들의 참여도 제고와 수련 지속을 향상에 기여하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수련자에게 효과적인 동기 유발 수단이 된다.

(3) **부모 참여 수업 도입:** 아동 수련의 만족도와 등록 유지율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보이고 있다. 주 1회 부모-자녀 공동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련생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같은 전략은 단순한 소비자 관리 차원을 넘어, 도장이 지역 사회 내 가족 중심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된다.

2) 동아시아권 마케팅 전략

동아시아권은 태권도가 국가 제도 속에 편입되어 있고 교육적 가치가 강조되는 지역이지만, 장기적인 참여 유도와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문화 및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입시 중심 사회 구조, 디지털 소비 행태는 태권도 마케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다문화 및 사회 통합 마케팅 전략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다문화 가정 및 이민자 아동의 증가로 인해, 태권도의 윤리성과 공동체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통합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Dong-A University의 무작위 대조 연구(RCT)는 태권도 수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 안정, 사회성 향상,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16주간의 수련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입증했다.

또한, 태권도는 문화 간 이해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한 연구는 외국 유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개인적 성장과 소속감을 경험

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태권도가 문화 교류 및 사회 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2) 학업·입시 연계 마케팅 전략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태권도가 입시 및 진로 활동과 연계될 때 소비자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태권도 공인 단증 취득과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입학 전형에 활용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한다.

한국 교육부는 고등학생의 교외 체육 활동 실적(단증, 대회 성과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이를 실질적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시 일부 체육고등학교는 태권도 경력을 체육특기자 전형의 자격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사립학교들도 태권도 활동을 학생 추천 입학 전형의 평가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3) 디지털 플랫폼 기반 마케팅 전략

동아시아권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소비층이 많아, SNS와 검색 기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다. 특히 학부모 세대는 정보를 신뢰도 있는 블로그, 포털 콘텐츠 등에서 확인하고, 청소년 세대는 숏폼 영상과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반응도가 높다.

이에 따라 도장은 YouTube, 블로그, 포털 키워드 기반 콘텐츠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고, TikTok이나 Instagram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마케팅의 일방향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설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3) 중남미권 마케팅 전략

중남미 지역은 다인종·혼혈적 문화적 배경과 강한 스포츠 열기를 지닌 시장으로, 태권도 역시 교육적 가치 외에 경쟁성과 커리어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 공인 체계, 커뮤니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전략이 요구된다.

(1) 브랜드 대회 연계 마케팅

중남미권 소비자는 스포츠 경기와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같은 엘리트 선수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 멕시코의 María del Rosario Espinoza는 세 차례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선수로, 해당 지역에서 스포츠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녀의 사례는 지역 도장의 수련 동기 유발과 부모 세대의 수용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처

럼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과 같은 강한 브랜드 이미지는 도장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데 유리하며, 수련을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로 연계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2) 연맹 기반 신뢰 구축 전략

중남미권의 태권도 신뢰성 제고에는 공식 단증 체계와 지도자 교육 표준화가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2022년 이후, **Pan American Taekwondo Union(PATU)**와 **Kukkiwon(국기원)**은 상호 협약을 통해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10개국 이상에서 공인 단증 발급, 지도자 교육 및 시험 운영 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있다. 이 협력은 중남미권 각국 도장에서 Kukkiwon 로고 사용, 교육 인증제 도입, 교차 인증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학부모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교육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공교육 외 체육 활동으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정부 지원과의 연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6. 정치·경제적 상황 기준에 따른 마케팅 전략

1) 개발도상국 마케팅 전략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달리 경제적 여건이 제한적이며, 태권도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 및 계층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교육 기회 제공,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도로서 개발도상국 내에서 점차 그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 및 학교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지방 정부, 공립학교, NGO 등과의 연계를 통해 태권도를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 지역 청소년 문화 활동, 범죄 예방 프로젝트에 통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교육 현대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는 ‘국가 공인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제도권 진입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국가대표 선발 및 국제대회 진출과도 연계할 수 있다. 둘째, 수련 비용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단체 프로그램 및 장학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 그룹 수련반을 구성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수련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유급 지도자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를 통해 사회적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필리핀, 케냐, 인도네시아와 같이 사회적 이동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국가에서 실효성이 높다. 셋째, 현지 지도자 양성을 통한 자립형 보급 전략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초기에는 해외에서 파견된 사범이나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존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현지 유단자를 대상으로 한 사범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지역 내에서 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수련 제공에서 나아가, 태권도가 해당 국가의 직업 훈련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 ‘모바일 태권도 버스 프로그램’ **과 같은 이동형 수련 시스템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도장 설치가 어려운 농촌이나 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내부를 도장처럼 꾸며 일정 기간 순회하면서 수련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태권도 기본기 교육뿐 아니라, 음악·게임·지역 공동체 활동 등을 결합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브라질 농촌 지역이나 인도네시아 외곽 지역 등에서 시범 운영이 가능하다.

2) 선진국 마케팅 전략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은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고, 교육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태권도를 단순한 무도 또는 스포츠 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웰빙, 정신 수양, 스트레스 해소, 자기계발 등 다양한 삶의 가치와 연결된 콘텐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선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통해 고급화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하다. 전문성을 갖춘 관장 및 사범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자호구, 모션 캡처, 실시간 수련 피드백 시스템 등 기술 기반 수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전문성과 과학적 수련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합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미국, 일본, 싱가포르와 같이 기술 친화적이고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태권도와 연동되는 AI 기반 모바일 코칭 앱이나 스마트 도복 프로그램 등이 고급 소비층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다

양한 목적에 따른 니즈를 반영한 회원 맞춤형 수련 설계가 요구된다. 연령, 체력 수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진도관리 및 성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수련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은 고령 사회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저장도 맞춤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태권도를 고연령층의 건강관리 수단으로 확장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웰빙 연계 콘텐츠 마케팅도 주목할 만하다. 태권도를 요가, 필라테스, 명상 등과 결합하여 복합 운동 콘텐츠로 재구성함으로써, 기존 무도 이미지에 건강하고 부드러운 라이프스타일 요소를 더하는 방식이다. 캐나다처럼 웰빙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는 태권도 수련 후 식이요법, 심리 안정 프로그램, 커뮤니티 워크숍 등을 연계한 ‘라이프스타일 태권도 패키지’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다.

한편, 참신한 접근으로는 ‘디지털 디톡스 태권도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 및 기기 과다 사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국가에서, 자연 속 수련장 또는 외곽 도장에서 일정 기간 전자기기 없는 환경 속에서 태권도 수련, 명상, 공동체 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국 도시권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정신 건강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마케팅 포지셔닝이 가능하다.

IV. 논의

본 연구는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 과정에서 국가별 문화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행동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문화적 가치관, 지역 문화권,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태권도 소비자들의 행동과 수요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됨을 보여주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와 연계하여 고찰하고, 태권도 글로벌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문화적 가치관과 소비자 행동의 연계

Hofstede(2011)의 문화 차원 이론에 따르면,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방식과 브랜드 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주의 문화권(예: 미국, 영국)의 소비자들은

자기표현과 성취 중심의 동기를 갖고 있으며, 맞춤형 콘텐츠와 자기주도적 수련 시스템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Markus & Kitayama(1991)의 자아 개념 이론에서 설명하는 독립적 자아가 소비 행위에 투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예: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집단 내 조화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권위자의 의견 및 집단 규범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공동체 중심 프로그램과 공식 인증 시스템에 높은 신뢰를 보이며, 집단 참여 유도형 마케팅 전략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Triandis(1995)의 문화적 자기 개념 이론과 부합하며, 스포츠 마케팅 전략 수립 시 문화적 자기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지역 문화권별 태권도 수용 양상의 차이

서구권, 동아시아권, 중남미권 간 태권도 수용 양상은 각 지역의 스포츠 문화와 교육 제도, 무도 전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서구권에서는 태권도가 주로 어린이 인성교육 및 피트니스 목적의 스포츠로 수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마케팅 전략이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Budd(2013)와 Bell & Chang(2008)의 연구에서 제시된 서구 청소년의 수련 동기와 일치하며, 콘텐츠 기반 소비환경이 태권도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반면, 동아시아권은 태권도의 제도화 및 교육적 활용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 through 수련 환경이 발달하였다. 특히 태권도의 정신성과 윤리성, 공교육과의 연결성이 높은 수용도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Hofstede의 집단주의 문화 지수와도 일치한다. 중남미권의 경우, 태권도가 경쟁 스포츠로서의 특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중시하는 특성을 함께 보이며, 공인 체계와 스타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Gonzalez & Ramirez(2022)의 연구에서 제시된 공동체 기반 스포츠 수용 성향과도 부합한다.

3. 정치·경제 환경에 따른 접근 전략의 필요성

정치·경제적 요인은 태권도 소비자의 접근성과 수련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발도상국(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소비자들은 가격 민감도가 높고, 수련 기회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확보를 주요 동기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협력, 이동형 프로그램(모바일 태권도 버스), 장학 시스템 등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

었으며, 이는 스포츠가 사회통합과 교육 기회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선진국(예: 미국, 일본, 독일)의 소비자들은 교육의 질, 시설 수준,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웰빙 콘텐츠, 디지털 수련 시스템, 맞춤형 수련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경제적 여유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스포츠 소비에도 투영된 결과로, 고급화 전략 및 차별화된 수련 콘텐츠가 핵심 마케팅 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태권도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 행동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Hofstede의 문화 차원 이론과 GLOBE 연구, Schwartz의 가치 이론 등 다차원적 문화 분석 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문화적 차이의 실제적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설명한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실무적으로는 태권도 단체, 마케팅 전문가, 체육 정책 수립자들에게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예를 들어, 중남미에서는 스타플레이어 연계 마케팅이 효과적인 반면, 동아시아권에서는 입시 연계 전략과 공공정책 통합이 중요하며, 선진국에서는 기술 융합 콘텐츠와 고급 수련 서비스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한다.

VI. 결론

본 연구는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문화권(서구권, 동아시아권, 중남미권)과 정치·경제 환경(선진국 vs 개발도상국), 문화적 가치 체계(개인주의 vs 집단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과 문화, 사회 시스템에 따라 태권도에 대한 인식, 수련 동기, 소비 패턴, 선호 채널 등이 뚜렷하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서구권은 개인주의 문화와 고소득 소비층 중심의 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자기표현과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성과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 디지털 콘텐츠 중심

의 수련 시스템, 감성적 브랜드 스토리텔링 전략이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동아시아권은 집단주의 문화와 입시 중심 교육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가족 단위 프로그램, 교육·진학 연계 전략, 권위 기반의 마케팅 요소가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학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인정이 수련 동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계적이고 권위 있는 교육 구조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중남미권은 태권도 확산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문화와 경제적 제약이 공존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에 따라 지역 축제와 연계한 브랜드 대회 기획, 현지 지도자 육성, 커뮤니티 기반 마케팅 전략이 유효하며, 태권도가 단순 스포츠가 아닌 사회 통합과 교육 기회의 수단으로 수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경제적 요인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태권도를 자기계발과 웰빙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 통합, 교육,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고급화된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과 비용 절감을 통한 공공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중 전략이 요구된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율성, 차별화, 자기표현 중심의 마케팅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공동체 소속감, 권위 신뢰, 사회적 인정 중심의 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소비자 행동이 본질적으로 달라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획일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태권도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시장에 적합하게 변용된 전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태권도의 문화적 외교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천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미영·하태규(2022). SNS 활용한 태권도장 브랜드 인지

도 제고 방안. 대한무도학회.

문화체육관광부. (2020). 「태권도를 통한 글로벌 문화 외교 프로그램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2). 한류와 태권도 융합 홍보 전략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22). 태권도 세계화 전략 실천과제 보고서.

브라질태권도협회(BTDF) 공식 보고서 (2022)

장경호 외(2023). 태권도장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 연구.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문화체육관광부. (2022). 태권도의 글로벌 확산 정책 자료집.

Lee & Yang (2023). 국제 태권도 행사 참가자의 방문 동기가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Moon, D.-W. 도입 이후 멕시코 태권도 인프라 관련 통계.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태권도 관련 인기 분석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태권도 문화 외교 관련 프로그램

Reddit 커뮤니티 기반 실 사용자 경험 인용: 참여도 및 태권도에 대한 평가

Reddit 커뮤니티 자료: "Taekwondo is pretty common for kids and teens in Latin America"

Ramirez (2017), Garcia & Gomez (2019): 멕시코 및 콜롬비아 청소년 자존감 및 정서 조절 효과 연구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Sage Publications.

House, R. J., Hanges, P. J., Javidan, M., Dorfman, P. W., & Gupta, V.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Sage Publications.

Kim, Y.-J. et al. (2021). The Psychosocial Effects of Taekwondo Training: A Meta-Analysis.

Levitt, T. (1983). The globalization of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61(3), 92-102.

Mullin, B. J., Hardy, S., & Sutton, W. A. (2014). *Sport Marketing* (3rd ed.). Human Kinetics.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Academic Press.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본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

김시환(신한대학교)¹⁾

국문초록

본 연구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 게시된 태권도 예능 영상 13편을 선정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7대 원칙의 4개 요소 확산성, 탐구성, 추출가능성, 사용자 참여성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콘텐츠는 흥미 위주의 단발성 서사로 구성되어 몰입과 참여 유도에 한계를 보였으나, 일부 콘텐츠는 태권도의 기술적 특성과 팬 커뮤니티의 반응을 연계하여 확장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태권도 철학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콘텐츠일수록 탐구성과 지속성이 높게 나타났다. 트랜스미디어 원칙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콘텐츠는 시청자의 인지, 감정, 실천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의 역량을 보였다. 본 연구는 태권도 예능이 문화적 브랜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태권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태권도 예능 콘텐츠, 유튜브,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제출일 : 2025. 08. 01.

심사완료일 : 2025. 08. 30.

1) ksh777maru@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태권도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대표적인 전통 무예로, 세계적으로도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스포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중문화 콘텐츠, 특히 예능 장르에서는 태권도를 중심 소재로 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거나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축구, 야구 등 타 종목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작되고 대중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확보해 온 것과 대조적인 양상이다.

실제로 2021년 MBN의 <병아리 하이킥>을 시작으로 태권도를 주제로 한 예능이 등장하였으나, 아동 중심의 콘셉트와 제한된 타깃층으로 인해 대중적 파급력은 낮았다. 이후 2025년 방영된 MBN의 <위대한 쇼 태권>, SBS의 <내일은 태권왕> 등은 각각 성인 선수와 청소년 수련생을 대상으로 오디션 포맷을 도입하며 포맷의 변화를 꾀했으나, 여전히 장기적 콘텐츠 지속성과 시청자 참여 유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태권도가 지닌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설계 및 미디어 전략의 부재로 인한 성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팬데믹 이후 미디어 소비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TV 중심의 미디어에서 유튜브 및 OTT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수용자가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콘

텐츠의 확산 및 변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플랫폼 간 세계관과 서사를 확장해 나가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이 주요한 콘텐츠 기획 기법으로 부상하고 있다(우일낙, 2022; 최영환, 2024).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수용자와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콘텐츠의 세계관을 입체화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지속성과 확장성 모두에 유효한 전략으로 간주된다. 이미 K-pop, 드라마, 게임, e스포츠 등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전략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며, 글로벌 대중성과 산업적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 연구는 일부 존재하지만, 예능 장르에 집중한 트랜스미디어 전략 연구는 아직까지 드문 편이다. 예를 들어, 김정모와 권정현(2014), 이정학 외 2명(2016)은 TV 예능에서의 태권도 경험적 가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배정섭과 김형훈(2021), 반은아와 나채만(2024), 엄주용과 박기수(2024)는 유튜브 플랫폼 내 태권도 콘텐츠 수용 및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단일 플랫폼 중심의 수용 경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능 장르의 스토리텔링 확장 전략, 특히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적용 양상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통해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서사적 확장성과 플랫폼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태권도 콘텐츠의 지속적 생산 및 대중문화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는 태권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한류(K-culture) 확산 전략, 청소년 체육 진흥 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문화자산이라는 점에서, 학

문적 가치뿐 아니라 정책적 실효성과 사회문화적 파급력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트랜스미디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본 연구는 콘텐츠의 전략적 기획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태권도의 사회문화적 확장을 위한 실천적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제작된 태권도 예능 콘텐츠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태권도 예능 프로그램이 뉴미디어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된 태권도 예능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성, 탐구성, 추출가능성, 사용자 참여성 등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7대 원칙이 콘텐츠 내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태권도 예능 콘텐츠가 대중성과 몰입도를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기획·확장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활용하여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수용자와의 능동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유튜브 기반 예능 콘텐츠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통적 방송 프로그램과 달리 유튜브 콘텐츠는 댓글, 실시간

반응, 2차 창작물 등의 방식으로 시청자의 직접적인 참여와 서사 확장을 유도할 수 있어, 트랜스미디어 전략의 실험성과 확장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분석 대상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중에서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콘텐츠로 한정하였다. 첫째, 태권도를 주요 소재로 삼고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한 예능 형식의 영상일 것, 둘째, 영상의 길이가 10분 이상일 것, 셋째,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것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콘텐츠는 ‘태권도 예능’, ‘태권도 체험’, ‘태권도 도장 방문’, ‘태권도 챌린지’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유튜브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3편의 영상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영상의 주요 정보는 <표 1>에 정리하였다.

2. 분석 방법

선정된 영상은 Jenkins(2007)가 제시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7대 원칙에 따라 분석하였다.

7대 원칙은 확산성(Spreadability)과 탐구성(Drillability), 연속성(Continuity)과 다양성(Multiplicity), 몰입성(Immersion)과 추출가능성(Extractability), 세계구축(Drillability), 연쇄성(Seriality), 주관성(Subjectivity), 사용자 참여성(Performance)으로 이루어져 있다.

7대 원칙 분석에 있어 조희영(2020)의 연구 방법에 따르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로서 다층적인 우수성을 판별하고자 7대 원칙을 요소별로 총 10개로 나눈 분석이 유효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에 7대 원칙을 분석하고자 효율적인 방법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본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

표 1.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영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채널	제목	게시 날짜	조회수	영상 시간
1	ltheK Originals	※도복핏주의※ 900도 발차기로 에이티즈 쓰러트린(?) 태권도 신동 THANXX 태권댄sver 공개! ATEEZ 아이썸Ep.2 Kids Teaching Idol	2020.11.27.	328만회	15:44
2	매미킴	[도장깨기 1탄]김동현이 태권도롤로 태권도 현역선수와 붙으면? (feat.태권도원)	2021.12.22.	130만회	19:49
3	워크맨	국대등장 세계랭킹1위와 붙어버렸습니다 태권도 이대훈 국가대표 워크맨 ep.134	2022.01.14.	282만회	14:16
4	라이체널 Dorai Games	태권도 학원에 가서 검은띠 구두자와 싸웠습니다 [급식걸즈 라이]	2022.09.18.	66만회	11:47
5	영국남자	잘봐 애들아~ 이게 국가대표 발차기야 태권도 매력에 푹 빠진 영국고딩들!!! (ft. 이대훈 선수)	2022.10.26.	614만회	12:45
6	지켜쥬	츄태식이 돌아왔구네! 츄꾸미들은 나가있어... 유단자끼리 한판 붙었습니다! 땡호상박 [건강을 지켜쥬]	2022.12.09.	166만회	11:32
7	NMXX	애기 선배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어린이 태권도장 쥬꾸미 EP.1	2024.06.07.	48만회	16:12
8	아이언빈 윤성빈	태권도? 맞아볼게요	2024.09.11.	18만회	13:59
9	M드로메다 스튜디오	보여줄게 360도 달라진 나 운동짱범규2 EP.05	2024.10.15.	78만회	14:36
10	1MILLION Offstage	Bestiegirl Harimu EP.9 태권도장 초등부 잠입 사건	2025.02.26.	20만회	14:49
11	흔한남매	리얼 학원체험! 태권도 학원 실제로 갔다가 힘들어서 기젤ㅋㅋㅋㅋ	2025.03.21.	60만회	14:12
12	BANGTANTV	[달려라 석진] EP.34 달려라 태권!	2025.05.13.	111만회	36:05
13	BOYNEXTDOOR	WHAT? DOOR! 사범님 이짜나여... 화요일에 놀러가도 됩니까?! : 태권넥스트도어 EP.39 - BOYNEXTDOOR (보이넥스트도어)	2025.07.08.	47만회	33:21

으로 10개 요소로 나누며, 분석은 단순한 유무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이 영상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확장되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태권도의 종목적 특수성과 콘텐츠 속 사회문화적 가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상 내 태권도 요소 또한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적 요소(기본기술, 겨루기, 품새, 격파, 시범), 사회 규범(공동체의 일원, 기본적 무도 규범), 플롯 유형(탐색, 라이벌, 성숙, 알레고리)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2>.

표 2. 영상 분석틀의 구성

구분	세부 내용
영상 일반	게시 날짜, 영상 시간, 조회수
스토리텔링 7대 원칙	확산성과 탐구성, 연속성과 다양성, 몰입성과 수출가능성, 세계구축, 연쇄성, 주관성, 사용자 참여성
태권도 고유성	기술적 요소(기본기술, 겨루기, 품새, 격파, 시범), 사회 규범(공동체의 일원, 기본적 무도 규범), 플롯 유형(탐색, 라이벌, 성숙, 알레고리)

3. 분석 절차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선정된 13편의 영상과 해당 채널의

보조 콘텐츠(티저, 비하인드, 시청자 반응 등)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사전에 정의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원칙의 요소와 태권도 요소 분석 기준에 따라 각 콘텐츠를 분류하고, 주요 특성과 전략적 구성 요소를 코드화하였다. 셋째, 동일한 원칙이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 사례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략적 패턴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기존 이론 및 선행연구와 대조·해석하여,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트랜스미디어 전략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방안

본 연구는 질적 콘텐츠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네 가지 평가 기준, 즉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을 바탕으로 분석 절차를 설계하였다.

첫째,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과 분석틀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 과정에 걸쳐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둘째, 전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수집, 분석 절차,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유사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의존성 확보를 위해 코드화 및 분석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점검하였다. 넷째, 확증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근거를 반영하고, 반복 분석을 통해 결과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분석의 투명성, 일관성, 재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7대 원칙에 따른 구현 양상

1)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10개 요소에 대한 구현도 분석 결과

본 연구는 Jenkins(2007)가 제시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7대 원칙을 10개 요소로 나누어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구현 양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13편의 영상에 대한 요소별 구현도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참여성이 13편 모두에서 구현되어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연속성(10편), 주관성(10편), 세계 구축(9편), 연쇄성(9편), 몰입성(8편), 확산성(6편), 탐구성(5편), 추출 가능성(4편), 다양성(2편)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 분포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중 유튜브 채널 <매미킴>의 영상은 전 요소에서 구현이 확인되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7대 원칙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는 종합격투기(UFC) 선수 김동현이 태권도 룰에 따라 현역 선수와 대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 무도인 태권도와 현대 격투 스포츠 간의 비교 구도를 통해 대중의 흥미를 효과적으로 유도하였다. 특히 “UFC vs 태권도”라는 설정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하며, 확산성과 몰입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 영상은 또한 태권도원의 실제 훈련 시설과 환경을 촬영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태권도 고유의 공간성과 제도적 문맥을 자연스럽게 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본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

러낸다. 이는 시청자의 장소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방문 의사를 유도함으로써 콘텐츠의 실질적 확장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본편 외에도 짧은 클립(Shorts)으로 재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을 별도로 업로드하거나, ‘도장깨기’ 시리즈 외 다른 종목과의 인터뷰 콘텐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이처럼 <매미킴> 채널의 콘텐츠는 트랜스미디어 전략에서 10개 요소로 나뉜 7대 원칙과 실천적 구현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공통 구현 요소로서의 사용자 참여성 분석

13편의 분석 대상 영상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된 7대 원칙의 요소는 ‘사용자 참여성’이었다. 이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과 구조적 환경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참여 유도’ 원칙을 구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용자 참여성은 단순한 시청을 넘어 댓글, 좋아요, 공유, 2차 콘텐츠 생산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가 콘텐츠 생성 및 유통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특성을 지닌다. 우일낙(2022)은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확장성과 몰입감 형성에 결정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워크맨> 채널의 경우, 시청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태권도 사범 직업 체험’ 콘텐츠가 제작되었으며, 영상 하단의 댓글란에는 태권도 관련 채널인 <태권인턴>과 <태권한

표 3. 7대 원칙의 10개 요소 구현도 분석 결과

채널	7대 원칙의 10개 요소									
	확산성	탐구성	연속성	다양성	몰입성	추출 가능성	세계 구축	연쇄성	주관성	사용자 참여성
ltheK Originals			○					○	○	○
매미킴	○	○	○	○	○	○	○	○	○	○
워크맨	○	○	○		○	○	○	○	○	○
라이채널 Dorai Games	○	○			○		○			○
영국남자	○	○	○		○	○	○	○	○	○
지켜췌			○						○	○
NMIXX									○	○
아이언빈 윤성빈	○		○		○		○	○	○	○
M드로메다 스튜디오			○		○		○	○	○	○
1MILLION Offstage			○		○		○	○		○
혼한남매	○	○	○	○	○	○	○	○		○
BANGTANTV									○	○
BOYNEXTDOOR			○				○	○	○	○
총계	6	5	10	2	8	4	9	9	10	13

류>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남기는 등 크리에이터와 유관 채널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매미킴> 채널의 영상에서는 촬영 장소인 태권도원이 댓글을 통해 직접 인사를 남기는 등 콘텐츠 출연자-장소-시청자 간의 삼자간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특정 장소나 조직이 사용자 반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전통적 예능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유튜브 콘텐츠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ltheK Originals> 채널에서는 영상 속 인상 깊은 장면의 타임코드를 댓글로 남기도록 유도하고, 이를 추천하여 출연 아이돌의 도복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시청자의 감정적 관여도와 콘텐츠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플랫폼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댓글 기반의 상호작용과 보상 연계 전략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구조 내에 사용자의 행위성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영환(2024)은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설계 전략이 브랜드 이미지의 지속적 형성과 콘텐츠 재생산의 동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이는 향후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확장성과 자생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3) 태권도 유튜브 예능 콘텐츠의 구조적 한계와 서사적 제약

분석 결과, 10개 요소 중 확산성, 탐구성, 다양성, 추출 가능성에 대한 구현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중 ‘다양성’ 요소는 콘텐츠의 기본 성격에 따라 구현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핵심 분석 요소에서는 제외 가능하다(조희영, 2020). 그러나 확산성, 탐구성, 추출 가능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핵심 기능과 밀접히 연관되며, 이 요소들의 부족은 태권도 콘텐츠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시사한다.

먼저, 전체 13편 중 8편은 연예인이 태권도를 체험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영상은 ‘도장 수련’이라는 고정된 서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구성은 시청자의 흥미를 출연자의 개성에 의존하게 만들고, 태권도라는 소재 자체에 대한 탐색적 가치나 문화적 해석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콘텐츠 확산이나 다양한 2차 담론 형성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대부분이 출연자의 일회성 경험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매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태권도를 실천하거나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출 가능성과 탐구성이 낮게 나타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스포츠 선수나 인플루언서가 출연한 영상 또한 태권도 수련을 전통적인 도장 수련 구조로 구성하고 있어, 유아-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수용자 층에 대한 서사적 확장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2024)는 태권도 수련이 긍정성, 자아 효능감, 과제 목표 지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련 지속의 동기 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콘텐츠들은 이러한 교육적·심리적 요소를 스토리텔링 구조에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태권도 콘텐츠가 갖는 심층적 가치가 단순한 ‘체험형 이벤트’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다수의 콘텐츠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술적 구조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철학적 의미, 정체성, 문화적 서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지 못한 채 상업적 호기심 자극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콘텐츠 제작 시 서사 구조의 다양화, 태권도 문화의 의미화 전략, 수용자 주체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기획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예능 콘텐츠에 재현된 태권도의 본질

유튜브 기반 태권도 예능 콘텐츠는 대체로 태권도를 처음 접하는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를 주요 출연자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콘텐츠가 태권도의 본질적 요소를 어떻게 재현하고 구성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콘텐츠에 나타난 핵심적인 태권도 요소를 정리하고, 대중적 체험 서사 속에서 태권도가 어떻게 매체적으로 표현되고 담화화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태권도 요소 분석 결과

항목	구분
종목	기본기술(11편), 겨루기(6편), 품새(3편), 격파(8편), 시범(3편)
사회 규범	공동체의 일원(7편), 기본적 무도(6편)
플롯 유형	규범(6편)탐색 플롯(7편), 라이벌 플롯(3편), 성숙 플롯(2편), 알레고리 플롯(1편)

1) 태권도 종목

분석 결과, 유튜브 예능 콘텐츠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태권도 종목은 기본기술, 격파, 겨루기, 시범, 품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현

빈도는 유튜브 콘텐츠의 서사적 구성 특성과 체험 콘텐츠로서의 태권도 이미지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기본기술’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것은, 태권도를 처음 접하는 출연자에게 입문적 체험이 서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청자에게 태권도의 보편성과 접근 가능성을 전달하는 서사 전략으로, 기획 단계에서의 콘텐츠 설계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격파나 겨루기와 같은 실전 종목은 콘텐츠의 역동성과 성과 기반 서사를 강화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이들 종목은 시청자의 몰입도를 증대시키고, 도전과 극복의 서사 구조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겨루기는 경쟁적 긴장감을, 격파는 시각적 성취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반응성과 확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반면, 품새와 시범 종목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졌는데, 이는 해당 종목들이 정형성과 미학성을 강조하는 반면, 예능 콘텐츠의 서사적 전환이나 감정적 고조를 유도하는 데는 제약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청자의 즉각적인 이해와 감정 이입을 유도하는 데 있어 시각적 명료성과 드라마틱한 전개가 요구되는 디지털 플랫폼의 환경과 이러한 종목의 특성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장석, 성동규(2022)는 감정 이입이 시청자가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노출하는 출연자에게 ‘또 다른 나’라는 심적 동질성을 일으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청행위로 연결하는 주된 정서라고 하며, 그 결과 감정 이입은 시청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게 하는 콘텐츠 기획의 필수요소로 정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유튜브 기반 태권도 콘텐츠는 입문-도전-성과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문화 콘텐츠 속에서 태권도의 무도적 가치를 ‘서사화된 체험’으로 번역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태권도 체험 콘텐츠에 나타난 사회규범의 서사적 구현

태권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집단 규범과 사회적 윤리를 내포한 무도 문화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영상 13편 중 7편은 출연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서사의 핵심으로 삼았고, 6편은 예절, 존중 등 기본적 무도 규범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었다.

콘텐츠 속 출연자들은 대부분 초보 수련생으로 시작하여, 수련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규율 체험, 협력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도장의 문화적 문법이 영상 내에서 서사적 규칙으로 전환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원재(2019)는 태권도 수련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촉진하고 교우 관계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예능 콘텐츠 속에서도 태권도 수련은 단지 신체적 기술 학습을 넘어 사회적 역할 수행과 윤리적 성장을 지향하는 스토리텔링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임일혁(2021)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자제력, 인내심, 배려심 등을 함양하며 선후배 간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유튜브 콘텐츠가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태권도의 교육적·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링하는 문화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유튜브 기반 태권도 예능 콘텐츠는 무도 문화의 상징성과 집단 규범을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전환하며, 태권도를 하나의 문

화 자산으로 확산시키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

3)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플롯 구조 유형

예능 콘텐츠에서 플롯은 단순한 장면의 나열이 아닌, 시청자의 감정 이입과 몰입을 유도하는 핵심 서사 구조이다. 본 연구는 플롯을 ‘탐색’, ‘라이벌’, ‘성숙’, ‘알레고리’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서사가 태권도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분석하였다.

〈표 5〉를 통해 가장 두드러진 유형은 ‘탐색 플롯’으로, 출연자가 태권도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목표에 도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는 기술 습득, 심사 준비, 겨루기 도전 등의 서사를 통해 학습의 극적 재현과 서사적 긴장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지닌다.

‘라이벌 플롯’은 경쟁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출연자가 실제 선수 또는 타 참가자와 겨루거나 대결하는 장면을 통해 경쟁성과 극적 긴장을 부각시킨다. 이는 태권도의 경기적 특성과 승부 요소를 극대화하여 시청자에게 스티링감을 전달한다.

‘성숙 플롯’은 출연자의 내면적 변화와 인격적 성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플롯은 수련 과정을 통해 책임감, 존중, 인내와 같은 무도적 가치를 강조하며, 태권도의 인성 교육적 기능을 드러낸다.





‘알레고리 플롯’은 수련 과정 자체를 특정한 철학적 가치나 사회적 메시지의 은유로 재구성하는 서사 유형이다. 예를 들어, 협동심, 인내, 문화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한 콘텐츠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콘텐츠의 깊이를 확장시키며, 태권도의 문화적 함의와 철학적 기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튜브 기반 태권도 콘텐츠가 체험 중심의 단선적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 유형을 통해 태권도의 다층적 가치를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근영, 김수정(2023)은 태권도 수련이 단순히 신체의 발달 또는 신체 기술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간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련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콘텐츠 기획 시, 이러한 서사적 다층성을 고려한 플랫폼 구성 전략이 요구될 수 있다.

표 5. 플랫폼 유형의 대표적인 영상

유형	구분
탐색 플랫폼	 채널-영국남자
라이벌 플랫폼	 채널-매미킴
성숙 플랫폼	 채널-M드라마 스튜디오
알레고리 플랫폼	 채널-MILLION Offstage

3.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개선 전략과 발전 방향

본 연구는 조희영(2020)의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7대 원칙을 10개 요소로 나누어 유튜브 기반 태권도 예능 콘텐츠 13편을 분석하였으며, 그중 <워크맨>, <매미킴>, <영국남자>, <흔한남매> 등 네 개 채널의 콘텐츠는 특히 확산성, 탐구성, 추출가능성, 사용자 참여성의 4개 요소가 높은 구현도를 보였다. 이는 해당 콘텐츠들이 단순한 수동적 시청 경험을 넘어, 시청자와의 능동적 상호작용과 서사적 몰입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워크맨> 채널은 연예인이 태권도 사범 역할을 수행하며 지도법을 익히는 과정을 담고 있다. 실제 태권도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현실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가치와 오락적 흥미를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확산성과 탐구성을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사례로 평가된다.

<매미킴> 채널은 격투기 선수와 태권도 선수 간 대결 구도를 통해 정식 경기의 규칙성과 긴장감을 강조하였다. 영상 후반부에는 태권도원 시설과 인터뷰 장면이 삽입되어 태권도 수련 환경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 제작자와 태권도원 공식 계정, 시청자 간의 댓글 상호작용은 브랜드 유입과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영국남자> 채널은 외국인의 한국 문화 체험 포맷을 활용하여, 태권도를 외부인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였다. 콘텐츠는 국기원 시범단의 퍼포먼스에서 출발하여 실질적 수련 체험으로 이어

김시환

지며, 태권도가 한국 전통 무예임을 내레이션과 시각적 장면을 통해 명확히 전달한다. 이는 해외 시청자에게는 문화적 호기심을, 국내 시청자에게는 자긍심을 자극하며 양측 모두의 자발적 댓글 참여를 유도하였다.

〈혼한남매〉 채널은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한 진로 체험 포맷을 활용하여, 출연자의 수련 과정을 중심으로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였다. 영상 말미에 출연자가 직접 느낀 변화와 감정을 진술하는 방식은 시청자의 감정 이입을 유도하였고, 댓글에서는 향후 체험해 보고 싶은 직업에 대한 제안이 이어지며 사용자 참여성과 지속적 콘텐츠 생산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태권도 예능 콘텐츠가 단순한 수련 체험을 넘어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 구조를 통해 시청자의 흥미, 탐구 욕구, 실천 의지를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미, 서재열(2021)은 예능 콘텐츠가 시청자의 흥미와 동기를 자극하여 비참여자를 잠재적 참여자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으며, 김동우 외 2명(2014) 또한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 동기로 흥미, 출연자의 매력, 외로움 해소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태권도 예능 콘텐츠 또한 시청자 중심의 설계와 트렌드 반영이 콘텐츠 확산에 핵심 전략임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향후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본기 수련을 단순 반복 구조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와 도전의 서사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시청자의 몰입과 감정 이입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성취 이후의 일회성 구조를 지양하고, 성취 이후에도 새로운 가치 탐색이나

정체성 형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스토리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태권도를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플롯을 강조함으로써, 무도 본연의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시청자와 공유해야 한다.

최윤정, 정금희(2025)는 응집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상호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청자들도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이 응집력이 높을수록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태권도 예능 콘텐츠가 단기적 흥미 유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지속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태권도의 대중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유튜브 기반 태권도 예능 콘텐츠에 적용함으로써, 뉴미디어 환경에서 태권도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7대 원칙 중 4개 요소(확산성, 탐구성, 추출가능성, 사용자 참여성)를 중심으로 13편의 유튜브 태권도 예능 영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콘텐츠에 재현된 ‘태권도의 본질’ 요소와 서사 구조를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현재 태권도 예능 콘텐츠는 확산성과 사용자 참여성 등 일부 원칙은 부분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나, 깊이 있는 탐구성과 장

기적 몰입을 유도하는 스토리텔링 설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인 핵심인 스토리텔링의 확장성과 참여 기반 서사는 콘텐츠가 일회성 체험을 넘어서, 출연자와 시청자가 함께 변화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태권도를 단순한 신체 수련이 아닌 문화적·철학적 실천으로 접근함으로써, 공동체적 가치와 상징성을 내포한 콘텐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향후 태권도 예능 콘텐츠는 몰입형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적 구조를 통해 시청자의 감정 이입과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고, 단기적 흥미를 넘어서 문화적 브랜드로 확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제작자와 수용자가 상호 소통하며 공동의 스토리텔링을 생산하는 구조로, 태권도 예능 콘텐츠의 장기적인 생존력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태권도 콘텐츠 연구들이 주로 교육적·스포츠적 관점에 머물렀던 데 반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예능 콘텐츠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분석의 범위가 예능 장르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교육,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장르에 적용 가능한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장르 간 융합을 통해 태권도 콘텐츠의 문화적 다양성과 미디어 활용 가능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우, 이지현, 이영주(2014).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청동기가 만족과 재시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6), 215-218.
- 김정모, 권정현(2014). 태권도 TV프로그램 방송 시청 경험적가치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363-372.
- 반은아, 나채만(2024). 태권도 기관 공식 유튜브(YouTube) 채널의 운영 현황 및 활용 방안. **국기원 태권도연구**, 15(1), 115-124.
- 배정섭, 김형훈(2021). 기술수용모델의 확장을 통한 태권도 수련생들의 유튜브에서의 태권도 콘텐츠 수용과정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30(1), 381-390.
- 엄주용, 박기수(2024). 유튜브 태권도 콘텐츠 유형별 재미요소 구현 양상 연구.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5(3), 1-21.
- 우일낙(2022). 뉴미디어 시대 예능 프로그램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 이상호(2024). 태권도수련의 재미요소와 성취목표성향이 태권도 참여지속의사 및 도장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22(1), 35-47.
- 이장석, 성동규(2022). 브이로그는 어떻게 MZ 세대의 문화가 되었나? 유튜브 브이로그의 관음주의가 감정이입, 시청 만족, 지속시청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22(4), 115-123.
- 이정학, 김욱기, 김민준(2016). 인문,사회과학편 : TV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태권도 경험적 가치가 시청만족과 추천의사 및 행

-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5(1), 391-401.
- 임일혁(2021). 태권도에서 필요한 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2), 29-38.
- 전원재(2019). 중학교 체육교과에서 태권도 수업의 교육적 기능 분석. **국기원 태권도 연구**, 10(1), 87-106.
- 정근영, 김수정(2023). 태권도 수련에서의 교육 철학: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주의 교육이론을 배경으로.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4(2), 1-11.
- 정일미, 서재열(2021). 골프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흥미, 동기유발, 직접 참여의도의 관계 : 골프 비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30(5), 483-492.
- 조희영(2020). <자이언트 팽TV> 스토리텔링 전략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의 가능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지**, 14(3), 211-227.
- 최영환(2024).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분석 : ‘최강야구’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학회지**, 22(1), 13-22.
- 최윤정, 정금희(2025). 집단 의사사회 상호작용(group-parasocial interaction)이 예능프로그램 시청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129, 299-321.
- Jenkins, H. (2007.3.21). Transmedia storytelling 101. Retrieved from http://henryjenkins.org/blog/2007/03/transmedia_storytelling_101.html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 및 제도적 개선방안 탐색

이지현(화성의과학대학교)¹⁾ · 신지훈(화성의과학대학교) · 최현숙(화성의과학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 및 제도적 개선 방안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의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타 전공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권도학과 전공생 및 타 전공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인식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및 귀납적 범주분석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학과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전공에 대한 인식에서는 태권도 학과 진학 이유,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후회 경험, 태권도학과 불만족 이유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태권도학과 진학 이유 항목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흥미’ 항목의 비율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후회 경험에서 ‘유’ 항목의 비율이 44.1%로 나타나 진로에 대한 후회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학과 불만족 이유 항목에서는 ‘진로 불안’ 항목이 4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에 대한 인식에서는 진로에 대한 불안정도, 관심 진로, 태권도학과 졸업 후 태권도 이외 진로 희망 여부, 진로 준비 시 겪는 어려움, 태권도학과 내 진로 준비 시 희망사항,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의 진로 지원 부족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진로에 대한 불안 정도 항목에서는 ‘약간 불안하다’ 항목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관심 진로 항목에서는 ‘태권도 사범’ 항목의 비율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학과 졸업 후 태권도 이외 진로 희망 여부 항목에서는 ‘가끔 희망함’ 항목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준비 시 겪는 어려움 항목에서는 ‘진로 정보 부족’ 항목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태권도학과 내 진로 준비 시 희망사항 항목에서는 ‘태권도학과 전공생 혜택’ 항목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의 진로 지원 부족 항목에서는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혜택’ 항목이 2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에 대한 분석결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전공 과목 학습의 현장 적용 한계, 자격증에 대한 전공생 연계 혜택 부족으로 나타났다. 넷째,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의 제도적 개선 방안 분석 결과,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자격제도 혜택 시행, 전공관련 직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진로 이탈 방지, 전공 관련 직종 채용 요건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장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태권도학과, 전공생, 진로, 자격 제도, 혜택

제 출 일 : 2025. 07. 31.

심사완료일 : 2025. 08. 30.

1) cy050711@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진로 선택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통계청에서 실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한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성적과 직업,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2). 특히, 입시 경쟁이 치열하고 대학 교육이 곧 미래를 결정짓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청소년들은 학과를 선택 함에 있어 자신의 적성, 관심과 함께 졸업 이후의 진로 연계 가능성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인 무도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며 기술적, 학문적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권도는 학문적 정립을 바탕으로 태권도학과 개설을 통해 우수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 해 오고 있다(김기남, 이승민, 2024). 전 세계 213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한 태권도는 1982년 용인 대학교에서 최초로 태권도학과를 개설한 이후, 1983년 종합대학으로는 경희대학교에서 최초의 태권도학과를 개설하며 태권도학 정립에 초석을 다졌다. 이후, 계명대학교, 경원대학교(現 가천대학교), 상지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에서 태권도학과를 설립하여(황영태, 김장환, 엄대영, 최명수, 2006), 태권도 전반에 대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의 태권도 관련 학과를 살펴보면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총 53개의 태권도 전공이 존재한다(대학알리미, 2025). 대학알리미(2025)에 따르면, 태권도학과 졸업생 수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학과 전공생들의 전공 연계 취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바른 인재 양성과 학문적 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태권도학과 개설은 태권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선사하였다. 하지만, 전공 연계 취업률에 대한 자료와 태권도학과생들의 고민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태권도 전공의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태권도학과생들의 커리큘럼 및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박광범, 이철원, 조남홍, 2015), 태권도학과생으로서 느끼는 혜택이 전무한 실정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에서 학과를 결정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전공에 대한 만족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뿐 아니라 진로 및 취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다(강혜영, 정태종, 2016). 따라서 전공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은 현실적인 고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크게 조명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현주, 정혜원, 2025).

실제로 대다수의 태권도학과생들은 졸업 후 지도자, 실업팀 선수,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있으나, 태권도 전공생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증이나 특별 채용 혜택이 전무하여 태권도학과 졸업에 대한 장점

이 존재하지 않아 전공생의 이탈률과 전공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간호학과, 한의학과, 교직 계열과 같은 전공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졸업과 동시에 국가 자격시험 혹은 전문 자격 면허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해당 전공의 졸업에 대한 실질적인 효용과 장점이 명확하게 보장된다. 또한, 구조적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연계가 보장되어 있어 해당 전공생으로서의 전문성 확보와 자긍심을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 따라 태권도학과 학생들은 진로 이탈, 타전공으로의 전환, 전공에 대한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태권도학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면 대학 교육과 실무 현장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현재 태권도학과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론과 실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과의 괴리감이 나타나고, 진로와의 연계에 대한 실질적인 커리큘럼 안내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기남, 이승민, 2024). 또한, 태권도학과 졸업을 통해 주어지는 공식적인 자격이나 사회적 인증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태권도장 사범과 같은 직종의 경우 태권도학과 전공생과 비전공생의 차별성이 거의 없으며, 태권도학과를 졸업하더라도 비전공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로에 대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태권도 직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태권도학과생의 고충에 대한 실증적인 탐색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태권도학과생을 위한 자격제도 및 채용 우대 정책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태권도 관련 직종에 대한 취업률 향상에 대한 이점뿐만 아니라, 태권도 종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태권도 전공생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확장할 수 있으며, 진로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한 태권도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의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자격 제도 신설, 직업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전공생과 비전공생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태권도학과 전공생들의 고민과 진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공 교육과정 에 대한 연구(김기남, 이승민, 2024; 임현경, 2020), 태권도학과생의 진로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김서경, 안근아, 2022; 박상진, 이재봉, 2019)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교육과정 전반이나 진로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을뿐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태권도학과생들의 고충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공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도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권도학과생의 전공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타 학과의 비교를 통해 태권도학과와 관련 직종의 연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는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태권도학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공생의 실증적인 고충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의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타 전공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태권도학과에 대한 전공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실증적 고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제의 제도적 한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의 제도적 한계 및 개선방안은 어떠한가?

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먼저, 전국의 태권도학과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2025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Naver Form을 활용하여 총 290부의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으며, 그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79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태권도학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전공과 진로에 대한 자료와 태권도학과 교과과정 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학과생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고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태권도학과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태권도학과생 및 타 전공생으로 구성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질문을 시작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로의 확장을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태권

표 1. 인식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특성	빈도(n)	비율(%)
성별	남	223	80.3
	여	55	19.7
학년	1학년	118	42.7
	2학년	77	27.6
	3학년	59	21.1
	4학년	24	8.6
대학소재지	수도권	50	17.9
	비수도권	229	82.1
국가대표 경험	유	35	12.5
	무	243	87.5
합계		279	100.0

이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여 태권도학과생들의 실증적 고충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의 토의를 통해 심층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나아가, 타 전공과의 비교를 위해 전문 직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학과에 진학하고 있는 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태

권도학과와의 제도적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비확률 표집법(non-probability sampling) 중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교) 태권도학과 전공생 9인과 타 전공생 9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2>과 같다.

3.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 및 제도적 한계 탐색 단계에 앞서 태권도학과생들의 전공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태권도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과정을 통해 개방형 및 폐쇄형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4. 심층면담을 위한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원활한 면담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와의 라포를 형성하였으며, 비구조화된 질문을 시작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로의 확장을 통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 프로토콜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질문지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태권도학과 교수, 태권도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의 토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2.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년	학과	희망진로
A	남	23세	4학년	태권도학과	태권도 사범
B	여	20세	1학년	태권도학과	코치, 관장
C	여	22세	2학년	태권도학과	해외 사범, 통역가
D	남	23세	4학년	태권도학과	태권도 사범
E	여	21세	2학년	태권도학과	태권도 사범
F	여	20세	1학년	태권도학과	태권도 지도자
G	남	21세	2학년	태권도학과	태권도 코치
H	여	20세	1학년	태권도학과	국가대표, 무대 디자이너
I	여	21세	2학년	태권도학과	태권도 시범 코치
J	남	29세	4학년	한 의학과	한 의사
K	남	23세	2학년	체육교육과	체육교사
L	남	20세	1학년	간호학과	간호사
M	여	24세	4학년	경영정보학과	금융권 취업
N	여	21세	2학년	간호학과	간호사
O	여	23세	4학년	에너지환경공학과	환경 관련 공무원
P	남	21세	2학년	간호학과	간호사
Q	여	22세	3학년	치위생학과	치위생사
R	남	21세	1학년	특전사부사관	특전사

표 3.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 프로토콜

구분	검색 키워드
태권도학과에 대한 전공생들의 인식	태권도학과와의 교과과정 및 진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 태권도학과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실증적 고충	전공생으로서 주어지는 혜택과 한계는 어떠한가요?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와 제도적 한계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와 제도적 한계는 어떠한가요?
태권도학과생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어떻나가요?

5. 자료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태권도학과 전공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된 279부의 설문지는 SPSS 29.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인식조사를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후,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전사 작업 후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영역별로 분류하여 귀납적 범주화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6. 자료의 진실성 및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 간 검토를 시행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전사한 자료를 보내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주관적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동료 간 협의 과정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반성적 주관성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태권도학과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연구문제 1. 태권도학과에 대한 전공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전국의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공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태권도학과생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태권도학과 진학 이유,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후회 경험, 태권도학과 불만족 이유로 분류되었으며, 태권도학과 진학 이유 항목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흥미’ 항목의 비율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후회 경험에서 ‘유’ 항목의 비율이 44.1%로 나타나 진로에 대한 후회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학과 불만족 이유 항목에서는 ‘진로 불안’ 항목이 4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태권도학과생의 경우 태권도에 대한 흥미와 진로에 대한 관심으로 전공을 선택하였으나, 진학 후 전공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는 학생이 많으며,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영역	구분	특성	빈도(n)	비율(%)	
태권도학과 학생의 전공에 대한 인식	태권도학과 진학이유	부모님 권유	22	7.9	
		선수 경력 연계	28	10.0	
		입시 컨설팅	13	4.7	
		장기적 진로 목표	60	21.5	
		태권도에 대한 흥미	141	50.5	
		기타	15	5.4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후회 경험	유	123	44.1	
	무	156	55.9		
	태권도학과 불만족 이유	교과목에 대한 불만족	교과목에 대한 불만족	33	11.8
			진로 불안	116	41.5
진로 혜택 전무			37	13.3	
흥미 저하			59	21.1	
시설 문제			6	2.2	
기타			28	10.1	
진로에 대한 불안정도		매우 불안하다	48	17.2	
		약간 불안하다	187	67.0	
		거의 불안하지 않다	38	13.6	
		전혀 불안하지 않다	6	2.2	
관심 진로	체육지도사	13	4.7		
	태권도 사범	105	37.6		
	해외 진출	33	11.8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	63	22.6		
	체육 교사	24	8.6		
	진로 결정 못함	26	9.3		
	기타	15	5.4		
태권도학과 졸업 후 태권도 이외 진로 희망 여부	태권도학과 졸업 후 태권도 이외 진로 희망 여부	매우 자주 희망함	69	24.7	
		가끔 희망함	157	56.3	
		거의 희망하지 않음	43	15.4	
		전혀 희망하지 않음	10	3.6	
	진로 준비 시 겪는 어려움	경제적 부담	50	17.9	
		실무(현장) 경험 부족	55	19.7	
		자격증 취득의 어려운	45	16.1	
		진로 정보 부족	72	25.8	
		진로와의 연계성 부족	57	20.5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	42	15.2	
태권도학과 내 진로 준비 시 희망사항	진로 멘토링	30	10.3		
	태권도학과 전공생 혜택	85	30.6		
	태권도학과 진로 연계 프로그램	45	16.3		
	현장 실습 기회	77	27.6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혜택	79	28.3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의 진로 지원 부족	취업 정보 및 연계	61	21.9		
	커리큘럼 다양성	63	22.6		
	현장실습 기회	52	18.6		
	창업 지원	24	8.6		
	합계		279	100.0	

다음으로, 태권도학과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에 대한 불안정도, 관심 진로, 태권도학과 졸업 후 태권도 이외 진로 희망 여부, 진로 준비 시 겪는 어려움, 태권도학과 내 진로 준비 시 희망사항,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 학과의 진로 지원 부족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진로에 대한 불안 정도 항목에서는 ‘약간 불안하다’ 항목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관심 진로 항목에서는 ‘태권도 사범’ 항목의 비율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학과 졸업 후 태권도 이외 진로 희망 여부 항목에서는 ‘가끔 희망함’ 항목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 준비 시 겪는 어려움 항목에서는 ‘진로 정보 부족’ 항목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태권도학과 내 진로 준비 시 희망사항 항목에서는 ‘태권도학과 전공생 혜택’ 항목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의 진로 지원 부족 항목에서는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혜택’ 항목이 2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경우 태권도와 연계된 직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관련 직종을 위한 자격증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원비(2016)은 태권도학과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원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권형일, 최미화(2020) 역시 대학생에게 있어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필요하며, 현장과 연계된 진로 교육에 따라 진로 이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진로에 대한 사회적 관

심과 대학생들의 고민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태권도학과 전공생들의 전공만족과 진로에 대한 연계를 위하여 대학 전공생활에 있어서 희망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적용 가능한 진로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2.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 분석 결과

‘연구문제 2.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실증적 고충은 어떠한가?’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태권도학과 전공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질문지를 통해 전국의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자료 분석 결과,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으로 첫째,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둘째, 자격증에 대한 전공생 연계 혜택 부족, 전공 과목 학습의 현장 적용 한계로 나타났다.

1)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태권도학과 전공을 공부 하다보면 태권도 지도자 외에는 진로가 떠오르지 않아요. 태권도를 전공해서 진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이 전혀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아쉬워요. (연구참여자 B)

태권도학과를 다니면서 배우는 수업들이 실제로 어느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태권도 사범, 태권도 기관 사무직 같은 다양한 태권도 관련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학생활을 해야 하고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은지 실질적인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연구참여자 D)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학과를 전공하는데 있어서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해 관련 직종에 대한 한정적인 정보만을 얻으며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은 대학 생활 중 전공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진로 이탈로 연결 되는 주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박광범, 이철원, 조남홍(2015)은 태권도학과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의 폭이 좁다고 인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남, 이승민(2024) 역시 진로와의 연계에 대한 실질적인 커리큘럼 안내가 필요하며, 태권도 관련 직종과의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태권도학과생들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실증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 교과목과 진로와의 연계성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설명 해주어야 하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학년별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전공 과목 학습의 현장 적용 한계

태권도학과의 실기 강좌를 통해 태권도를 심층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움을 얻기 어렵다. 또한 전문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대학 강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에 진출하기에는 내용이 다소 원론적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참여자 A).

인턴십, 실습, 졸업 후 연계 고용 등 취업 연결 구조가 타학과에 비해 약합니다. 또한, 이론 과목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과거의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고, 실기과목도 극히

일부의 과목만 현장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기초적인 내용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공생으로서 기초적인 부분과 원론적인 부분을 학습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좀 더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태권도학과 전공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는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 과목과 현장과의 괴리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태권도학과 전공 과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여 진다. 박지원, 임진선(2018)과 김기남, 이승민(2024)은 시대적 변화 적용을 통한 현장과의 괴리감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전정우(2004)의 연구 역시 태권도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적합한 이론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현장 적용 한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권도학과 전공 과목의 학습 내용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실제 수강하는 전공생들의 요구조사를 통한 새로운 수업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자격증에 대한 전공생 연계 혜택 부족

태권도학과를 졸업하더라도 관련 자격증을 위해 따로 이론시험 및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한, 전공 특성에 맞는 진로 지원과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쌓고 체

계적인 취업 지원과 자격증 취득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참여자 C)

태권도 단증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 쉽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인도 쉽게 태권도 관련 자격증, 예를 들어 사범 자격증, 스포츠 지도사 등을 취득 할 수 있어서 단증과 마찬가지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개관할 수 있기에 전공생이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연구참여자 D)

대부분의 연구참여자지는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주된 고충으로 전공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전공생을 위한 혜택이 전무하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활에서의 전공은 대체적으로 진로와 직결되어 어지기에 실제 직업군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정재원, 2015). 하지만 태권도학과의 경우 전공 과목 내의 태권도 관련 직종 및 자격증과 관련된 이론 및 실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 시 비전공생과의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일반인과 동일 선상에서 진로를 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공생으로서 장점을 느끼지 못해 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진로 이탈 방지와 태권도학과 전공과 진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전공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전공생 혜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문제 3.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의 제도적 한계는 어떠한가?’와 ‘연구문제 4.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의 제도적 한계 및 개선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태권도학과생과 더불어 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자료 분석 결과, 첫째,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자격제도 혜택 시행, 둘째, 전공 관련 직종 연계 프로그램 구축, 셋째, 전공 관련 직종 채용 요건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장 및 진로 이탈 방지로 나타났다.

1)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자격제도 혜택 시행

타 학과는 관련 학사를 취득 시 이론 지식 및 실기 능력을 인정해주어 관련 자격증 취득 요건이 충족되어 바로 자격증 발급이 되지만 태권도학과는 이러한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연구참여자 A)

진로 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전공 체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권도학과 졸업 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부족한데, 전공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적인 태권도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G)

저희 학과는 6년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졸업하고 보는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자 진로 선택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J)

저는 교원자격증을 위해 체육교육과를 선택해서 준비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대학 생활에 있어서 임용고시를 목표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K)

태권도학과 전공 연구참여자의 경우 학과 졸업 시 이점이 부족하며, 전공생임에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일반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자격시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타 전공 연구참여자 J와 K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자격을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공에 대한 만족과 함께 뚜렷한 진로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권도 종목의 경우 이론 능력 뿐만 아니라 실기 능력 전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태권도 관련 자격증의 경우 전국의 태권도학과에서 이수하고 있는 교과목의 포함되어 있는 이론 및 실기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태권도 전공생과 비전공생의 차별점을 통해 전공생의 전공 만족 및 자긍심 강화, 진로이탈 방지 및 직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태권도 유관기관에서는 태권도 관련 자격증에 대한 전공생 혜택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전공관련 직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진로 이탈 방지

인턴십, 실습, 졸업 후 연계 고용 등 취업 연결 구조가 타학과에 비해 약합니다. 대부분 도

장과 시설에 직접 자리를 구해야 하며, 학과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D)

태권도학과 졸업 후 진로 연계가 가능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현장 실무, 인턴십 등의 활동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생긴다면 태권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H)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습 및 실험 교육이 이루어져 있으며, 임상 수업을 통해 직접 직업 현장에서 하는 일을 미리 경험 할 수 있어서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직업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N)

대부분의 태권도학과 전공 연구참여자들은 태권도학과 졸업 후 진로 연계가 가능한 외부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전공 관련 직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 부족은 재학생의 진로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져 진로 이탈로 이어지게 된다. 타 전공 연구참여자 N의 경우 전공 과목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의 실습과 임상 수업을 통해 전공 관련 직종에 대한 준비로 이어진다고 응답하였다. 항공서비스학과와 같은 전문직 학과의 경우에도 기업과 사회적 측면에서 전공 학과의 교육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산학협력교육을 통해 중·고등학

교 교육부터 직업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연계 직업군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이영민, 임정연, 2010).

따라서, 태권도학과 전공생의 전공만족 및 진로준비행동 강화를 통한 진로 이탈 방지를 위해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은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전공 관련 직종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전공 관련 직종 채용 요건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장

전공생을 위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년제 태권도학과를 전공해 졸업한 사람은 4년간 태권도 실기 능력뿐 아니라 기본적인 체육학부터 응용된 이론 부분까지 공부해 학사를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사를 취득했음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일 선상에서 시작한다면 태권도학과를 전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A)

태권도학과를 졸업하여도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태권도 사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이 일반인과 비교했을때 큰 이점이 되지 못합니다. (연구참여자 D)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자는 소방관,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등 특채로 지원이 가능하고,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자긍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R)

태권도학과 전공 연구참여자의 경우 태권도 전공생으로서 4년의 과정 동안 다양한 이론 및

실기 내용을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 비전공생과 차별점이 없으며 동일선상에서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며, 태권도 전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타 전공 연구참여자들의 응답에 따르면 전공생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자격면허가 주어지거나, 관련 직종 채용 시험 시 전공생에 대한 채용 요건이 지정되어 있어 비전공생과는 뚜렷한 차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권도 관련 직종의 경우 태권도 전공생에 대한 요건이 전무하며, 이에 따라 직업 전문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직종의 경우, 인력의 전문성이 해당 직종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백혜리, 2008).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해당 인력의 전문성은 직업적 정체성의 강화 및 직업군의 질적 성장과 직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곽윤숙, 2013). 이러한 전문직의 경우 해당 학과를 졸업한 전공생에 한하여 자격면허가 주어지 해당 직종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태권도 관련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전문적인 역량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종 채용 시 전공생과 비전공생의 채용 요건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일한 조건은 태권도 종목 관련 직종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태권도 전공생의 의욕 저하로 이어져, 태권도 종목의 질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 및 시도협회에서는 태권도 전공생을 위한 채용 요건 강화를 통해 직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태권도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태권도학과 과생의 실증적 고충 및 제도적 개선방안 탐색을 통해 태권도 관련 공공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태권도학과생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 및 진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 전공생 및 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학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탐색을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문가 집단과의 합의과정을 거쳤으며, 귀납적 범주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학과생의 전공 및 진로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태권도학과 진학 이유 항목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흥미’ 항목의 비율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대한 후회 경험에서 ‘유’ 항목의 비율이 44.1%로 나타나 진로에 대한 후회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학과 불만족 이유 항목에서는 ‘진로 불안’ 항목이 41.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진로에 대한 불안 정도 항목에서는 ‘약간 불안하다’ 항목이 67.0%로 가장 높았으며, 관심 진로 항목에서는 ‘태권도 사범’ 항목의 비율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태권도학과 졸업 후 태권도 이외의 진로 희망 여부 항목에서는 ‘가끔 희

망함’ 항목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준비 시 겪는 어려움 항목에서는 ‘진로 정보 부족’ 항목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태권도학과 내 진로 준비 시 희망사항 항목에서는 ‘태권도학과 전공생 혜택’ 항목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와의 진로 지원 부족 항목에서는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혜택’ 항목이 2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에 대한 분석결과,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전공 과목 학습의 현장 적용 한계, 자격증에 대한 전공생 연계 혜택 부족으로 나타났다. 넷째, 타 전공과의 비교를 통한 태권도학과와의 제도적 개선 방안 분석 결과, 태권도학과 전공생을 위한 자격제도 혜택 시행, 전공관련 직종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진로 이탈 방지, 전공 관련 직종 채용 요건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태권도 관련 직종 및 자격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전공생을 위한 제도적 혜택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태권도 전공생의 전공 만족 및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태권도 사회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 및 제도적 개선방안 탐색을 위해 타 전공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태권도학과생의 실증적 고충 및 제도적 개선방안 탐색

해 태권도학과생을 위한 자격제도 및 직업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전국 의 태권도학과 및 태권도 관련 기관의 협력체 계구축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생을 대상으로 연 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대 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직종에서 진 로를 이어가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연구참여 자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태권도 관련 직종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 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정태종(2016). 흥미-전공일치도와 전공 적응 수준에 따른 기본심리욕구의 차이: 공학계열 2학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19(6), 10-19.
- 곽윤숙(2013). 보육교사의 직업적 성격에 따른 전문성 논의. **직업교육연구**, 32(5), 95-114.
- 권형일, 최미화(2020). 대학생 학생선수를 위한 진로교육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 및 교과내용 제안. **한국체육학회지**, 59(2), 109-119.
- 김기남, 이승민(2024).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태권도학과 교과과정 분석 및 커리어 디자인 전략 탐색.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5(2), 1-17.
- 김서경, 안근아(2022). 태권도학과 졸업생의 사회진출 진로 불일치에 관한 요인탐색. **한국스포츠학회지**, 20(4), 649-656.
- 대학알리미(2025). 키워드별 학과정보.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50/doinit.do>.
- 박광범, 이철원, 조남홍(2015). 태권도학과생의 고민. **한국체육과학회지**, 24(3), 121-131.
- 박상진, 이재봉(2019). 대학 태권도 전공자의 진로 탐색과정에 대한 경험적 특징. **한국스포츠학회지**, 17(4), 1243-1253.
- 박원비(2016). 태권도지도자 양성을 위한 태권도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4(1), 73-82.
- 백혜리(2008). **보육교사론**. 서울: 동문사.
- 유현주, 정혜원(2025). 전공전환 대학생의 학업 적응 및 진로탐색 과정에 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5(2), 71-101.
- 이영민, 임정연(2010). 대졸 초기 경력자의 자발적 이직 결정요인 및 효과분석.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12(1), 129-153.
- 임현경(2020).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정우(2004). 태권도의 사회학적 이론 정립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13(2), 93-111.
- 정재원(2015).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41-62.
- 황영태, 김장환, 엄대영, 최명수(2006). 태권도학과 학생들의 진로의식성숙도가 전공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5), 253-262.

글로벌 현장에서 길러낸 태권도 사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김하경¹⁾ · 신재경(신한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태권도 사범들이 낯선 언어와 문화 환경 속에서 마주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며 형성해 온 역량의 양상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 중인 태권도 사범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개방 코딩 중심의 질적 분석을 통해 공통된 경험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언어적 한계, 비언어적 전달의 어려움, 문화적 충돌 등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장벽에 직면하였으며, 이는 수업 운영과 관계 형성에서 지속적인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반복 시범, 실용 표현 습득, 문화 맥락 조정 등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점차 소통 방식을 조정하였고, 타인의 수업 관찰과 비공식적 소통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장해 갔다. 대부분은 개인적 노력에 의존하였으며,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 문화 감수성과 실천적 조정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해외 태권도 사범,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화 적응, 실천 전략

제 출 일 : 2025. 8. 1.

심사완료일 : 2025. 8. 30.

1) hakyoung223@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권도는 전 세계 213개국에 보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스포츠로(WT, 2025), 문화 외교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만큼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2028년 LA 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오르며 더욱 확고해졌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한국 문화의 심층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 매개체로 기능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가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난희와 김옥현(2019)의 연구에 따르면,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예로서 지닌 상징성과 문화적 의미를 통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태권도가 문화적 상징으로서 갖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해외 태권도 사범은 단순한 기술 교육자에 그치지 않고 태권도 정신과 한국 문화를 함께 전파하는 문화 외교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김주연, 2019; 김하영, 강은석, 2010).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는 데에서의 매력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태권도 사범들은 해외 진출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으며(나윤호, 장익영, 2021),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활발한 해외 진출과 문화 전파 활동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 없이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해외 태권도 사범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깊은 이해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끼리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다(국립국어원, 2025).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으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된다(최신혜, 양석준, 김형준, 2016).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를 매개로 한 정보 전달 방식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사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정미영, 2024). 반면, 표정, 시선, 제스처 등으로 대표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보다 더 직관적으로 의도를 전달하며, 학습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김옥주, 김도훈, 2024). 나아가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식 공유와 상호 이해, 설득과 공감의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 상호작용으로서(천시우시우, 최은경, 2024),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효과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황유선, 김민규, 김주환, 2009; 김현숙, 강선모, 2013).

해외 태권도 사범들은 언어적 한계, 문화적 차이, 다양한 수련생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등으로 현지 적응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혜영과 박재우(2020)의 연구 참여자들은 미국 내 태권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외로움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에서 살아간다고 하였다. 박성연과 허재성(2017)은 한국국제협력단원들이 파견 초기에

서 1년 차까지 언어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느낌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렇듯 여러 선행 연구에서 해외 태권도 사범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논의에 머물거나 제한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기원 해외 파견 사범 9명의 근거 이론적 연구(김형환, 윤정희, 이혁기, 2024)나 인턴십 프로그램 사례 분석 및 문화 기술적 연구(빙원철, 권혁정, 2020) 역시 특정 학교나 전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로 광범위한 해외 태권도 사범의 경험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태권도 사범의 현장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경험, 문제 해결 과정, 역량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국기원에서는 사범 해외 파견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기원에서 직접 선발한 일부 파견 사범에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일반 태권도 사범들이 폭넓게 접근하거나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 내용 역시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차원에 그쳐,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충분히 배양하기에는 미흡하다.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은 수업의 질 저하, 수련생과의 관계 형성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도자의 현지 정착과 태권도 보급의 지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태권도 사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단순한 언어 전달 능력에 국한되지 않고, 수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들

이해하며 적응해 나가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실천적이며 경험 기반의 접근을 통해 해외 태권도 사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다각도로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이 사전에 준비한 내용과 현지에서 겪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실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최소 1년 이상 활동 중인 한국인 태권도 사범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적응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내적 통찰을 충분히 확보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해외 사범 경력, 연령, 학력, 성별, 태권도 단(段) 등을 포함하여 표집의 이질성을 고려하였으며, 현지 수련생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풍부하고 자기 경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참여자 9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성별	현 단	해외 사범 경력
A	여성	공인 7단	23년
B	여성	공인 4단	10년
C	남성	공인 5단	9년
D	여성	공인 5단	7년
E	여성	공인 4단	2년 8개월
F	여성	공인 4단	2년 6개월
G	남성	공인 5단	1년 7개월
H	남성	공인 4단	1년 6개월
I	여성	공인 4단	1년 2개월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을 시행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관련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질문지의 타당성과 구성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태권도학 분야 전공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질문 항목의 명확성, 연구 목적과의 정합성, 면담 흐름의 자연스러움 등을 점검하여 보완 후 확정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초기 해외 태권도 사범 활동 중 겪은 적응 과정과 커뮤니케이션상의 어려움’, ‘현재 현지 적응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 경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변화 과정’ 등이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에 앞서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해외 태권도 사범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해 1회당 약 60분 내외로 화상 통화 또는 직접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사전 동의 후

녹음하여 기록하였으며, 인터뷰 이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사항은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후속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심층 면담 자료는 전사 작업 후,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개방 코딩(open cod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은 원자료를 의미 단위로 세분화하여 나눈 뒤, 각 단위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점차 추상화하여 하위 범주와 최종 범주를 형성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참여자의 진술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식별하고 반복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개념을 도출하는데 유의미하며, 이를 통해 주제별로 조직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자료의 신뢰성 및 윤리성

본 연구는 참여자 선정 과정의 적절성, 반구조화 질문지의 구성 절차, 자료 분석의 일관성과 해석의 객관성 확보 등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credibility, dependability)를 높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유형별로 분류한 뒤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분석 및 검토 과정에서 태권도학 박사 2인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의 타당성과 범주화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Lincoln & Guba(2000)가 제시한 신뢰성 확보 전략 중 삼각검증과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여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하였다. 윤리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연구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었으며,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

았고, 연구 종료 후에는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해외 진출 전, 사범의 준비 과정

해외에 진출한 태권도 사범에게는 단순한 지도 능력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수련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해외로 나가기 이전부터 수업 운영에 필요한 언어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태권도학과 전공 수업 내 진행된 어학 교육을 통해 태권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지시어, 기술 명칭, 상호작용 표현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근무 예정 태권도장의 커리큘럼과 용어 자료를 미리 전달받아 학습함으로써, 실제 수업 운영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학교에 해외 태권도 지도자 관련 전공 영어 수업이 따로 있었는데요.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태권도 지시어 같은 걸 많이 배웠어요. (연구 참여자 D)

실제 영어를 사용하며 그룹별로 태권도 수업을 진행해 보는 전공 수업이 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G)

싱가포르 출국 두 달 전부터 관장님께 수업 커리큘럼을 받아서 전부 다 외우면서 준비했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E)

태권도장에서 쓰는 용어들은 미국 관장님께 미리 파일을 받아 공부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D)

이러한 사전 준비는 단순한 언어 능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해외 수업 환경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는 실천적 의도를 포함한다. 특히 커리큘럼 기반 학습은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하였으며, 실제 수업 시에 언어적 당황이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유정아(2020)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자의 수업 준비 태도는 학습자의 수업 참여, 이해도, 몰입도에 직결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태권도 사범의 수업 준비 수준은 수련생과의 첫 접점에서부터 수업 전체의 흐름과 상호작용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적 기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태권도 전공자나, 이들을 배출하는 학교나 기관에서는 반복적인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현지 태권도장 환경과 수련 문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준비 과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2. 커뮤니케이션의 벽

연구 참여자들은 태권도장 내 수업 과정에서 언어적, 비언어적, 문화적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한계를 경험하였다. 이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 종교적 배경을 지닌 수련생들과 지속해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조정해 나가며 그에 따른 심리적·실천적 부담을 체감하면서도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었다.

1)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

글로벌 현장에서 길러낸 태권도 사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태권도장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을 학습하였으나, 실제 태권도장에서는 지역 특유의 억양, 발음, 현지 용어 차이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전화 상담이나 1:1 수업처럼 청각적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말투나 억양 차이로 이해도가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이는 곧 자신감 저하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역마다 상이하게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운 표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싱가포르는 중국어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두 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H)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라 관장님께서 전화 상담을 맡기셨는데, 발음이나 말투만 듣고 대화하니 대면 소통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연구 참여자 C)

학교에서 배운 태권도 관련 영어들을 태권도장에서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제가 있는 태권도장에서는 대부분 용어가 다르게 불리고 있어서 결국 다시 다 외워야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G)

이러한 경험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문장 구사를 넘어 억양, 문맥, 의도의 전달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채욱과 서수진(2021)은 중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수업 몰입과 지도자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변면섭, 염군양과 최경근(2025)은 피트니스 강사의 의사소통 방식이 참여자의 몰입과 지속 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태권도 수업에서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수련생과의 관계 형성, 수업 집

중도,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시사한다.

2)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적 오해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범, 표정, 몸짓,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난도의 기술 설명이나 동작 교정과 같이 세밀한 지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식만으로 의도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련생의 이해 여부를 파악하거나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도 한계를 느꼈다.

저는 1대1로 진행되는 '스페셜 클래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어요. 이 수업은 주로 수업을 따라오기 어려운 수련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전반적인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연구 참여자 B)

대회 준비 기간에는 힘들었습니다. 동작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동선이나 기술들에 대해 피드백할 때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직접 시범을 자주 보인 것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D)

학생들이 저를 보고 폼새를 따라 하긴 했는데, 세세하게 설명하고 동작을 잡아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F)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직관성과 시각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달력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개별 지도나 기술 중심 수업에서는 수련생의 이해 수준에 맞춰 의도를 조율하는 고도의 상호작용 역량이 필요하다. 김옥주와 김도훈(2024)은 지도자의 표정, 시선,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수업 참여자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그 표현이 일방적이거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상호작용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은주와 박지현(2021) 또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자의 몰입과 감정적 반응을 조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수련생에 대한 이해와 상황 판단력, 정서적 감수성이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태권도 수업에서는 단순한 시범이나 제스처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며, 수련생의 상태를 관찰하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태도와 상황에 맞는 전달 전략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문화적 코드의 충돌과 조율

문화적 차이는 태권도장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인종과 종교, 언어적 배경을 지닌 수련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한국식 지도 문화와 괴리, 혹은 문화적 오해를 경험하면서 긴장을 경험하였다.

미국은 존댓말이 없어서 청소년 수련생들이 너무 친구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거슬렸어요. (연구 참여자 A)

한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들은 어린 수련생들이 귀여워서 안아주거나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 강조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D)

싱가포르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슬람교의 라마단 시기가 되면 학생들이 물도 못 마시고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는 라마단 기간의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수련생들과의 소통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연구 참여자 D)

이와 같은 경험은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한 문화 지식의 습득을 넘어 수업 중에 발생하는 실질적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영경(2018)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작용에서 다문화 감수성이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였으며, 육명신, 박명신과 임영옥(2021)은 다문화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간의 관계를 통해 실천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강훈(2019)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태도와 역량이 학습자의 수용과 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며, 문화적 다양성이 높은 환경에서 교사의 민감한 반응과 조율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태권도 사범도 수련생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상황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태권도 사범은 수련생의 문화적 배경과 행동 양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감정 조절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종교나 정서적 표현과 관련된 문화적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수업 진행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응 역량이 필요하다.

3. 현장에서의 적응과 성장 전략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 현장에서 마주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단순히 인내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실제적인 해결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점차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적, 비언어적, 문화적 차원

글로벌 현장에서 길러낸 태권도 사범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에서 드러난 어려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극복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1) 실전 속 언어 능력 향상 전략

연구 참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제는 대부분 수업 운영의 핵심적인 기능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용적이며 반복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수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설명 문장을 선배 태권도 사범이나 현지 동료에게 자문하고 이를 노트에 정리한 뒤 반복 암기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업에 필요한 표현을 사전에 습득하였다.

수업 커리큘럼을 짤 때, 수업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명을 미리 외국인 태권도 사범들에게 물어보고 노트에 적어 외웠습니다. (연구 참여자 H)

이러한 접근은 언어 지식이 이론적인 습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맥락에 맞는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실천적 통찰을 반영한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언어 표현의 빈도와 상황적 사용법을 파악한 뒤 학습하는 것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향상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한, 다른 태권도 사범의 수업을 관찰하고 표현을 모방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으로 이어졌다. 이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교실 수업처럼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실제적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체득되는 방식으로 학습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사범님들이 수업 때 사용하는 문장들을 집중

해서 들어봤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저도 그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F)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 학습 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관찰학습’이나 ‘역할 모델링’을 통한 실용적 언어 능력 개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언어 행동을 역할 모델링으로서 제시하면, 학습자는 이를 관찰학습하여 실용적 언어 표현을 내면화할 수 있다(차경미, 2021). 이는 학습자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모방하면서 언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수업 외 상황에서의 자발적 회화 시도 역시 회화 자신감과 표현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태권도장에 방문한 학부모들과의 스톱토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수업을 위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교류의 수단으로 확장시켰다.

미국 태권도장은 부모님께서 수업을 참관하고 계세요. 틈틈이 부모님들과 스톱토크를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회화 실력도 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B)

이는 언어 사용이 공식적 수업 상황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대화(스톱토크) 속에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련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진아(2023)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 외적 상황에서의 일상적 언어 행위를 통해 학부모와의 신뢰 형성 및 관계를 맺어 관계적 교육 역량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전략은 반복 학습, 현장 관찰, 비공식적 대화를 포괄하는 실천 기반의 언어 습득 과정으로 체계화되어 있

었다.

2) 태권도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제도적 과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대부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특히 해외 태권도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이나 실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어로 수업하는 전공 수업이 있긴 했는데요. 일상 대화나 문화적인 부분은 거의 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F)

태권도 사범으로서 해외에 나가면 태권도장 안에서의 영어보다도, 수련생이나 학부모들과 나누는 대화가 더 어렵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A)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적 한계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상황별 반응 전략 등 복합적인 역량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인증기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

첫째, 태권도 전공 커리큘럼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태권도 영어’ 나 ‘글로벌 지도자 과정’ 과 같은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공 관련 용어를 배우는 수준이며, 교양 교과로 운영되는 등 단기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어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수업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역할극 기반 실습,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토론, 그리고 실제 해외 태권도 사범의 경험을 다룬 사례 강의 및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국기원 등 태권도 사범 인증 기관 차원의 사후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3급 국제태권도 사범 취득 과정은 온라인 이론 교육을 이수 및 평가한 뒤, 태권도 기술 수행 능력과 지도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 전형, 지도자의 자질 및 언어 구사력을 평가하는 구술검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세계태권도연수원, 2025),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환경에서의 지도 활동을 고려할 때, 태권도 사범 인증 과정에 커뮤니케이션 역량 평가를 일부 반영하거나, 이를 위한 별도 워크숍, 수료 과정, 실습 인증 프로그램 등의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 파견이나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태권도 사범을 위한 맞춤형 사전 훈련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강정진(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해외 교육 실습 전에 실시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해 현지 실습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문화적·교육적 환경과 언어적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별 커뮤니케이션 대응 매뉴얼, 현지 적응 사례집, 실무형 언어 표현집 등을 개발 및 도입한다면, 예비 태권도 사범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준비를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태권도 사범들의 현장 경험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진혜원과 김유리(2023)의 연구에서 선배 멘토링 기반 진로 교육

이 후배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설계 능력을 향상한다고 한 것처럼, 해외 사범들의 경험과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국기원이나 대학 주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국기원과 같은 기관에서 해외 사범의 활동 현황과 커뮤니케이션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면, 교육의 실효성과 현장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외에 진출한 태권도 사범들의 준비 과정과 현지에서 겪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성장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효과적인 해외 태권도 지도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에서 최소 1년 이상 활동 중인 태권도 사범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개방 코딩 기법을 통해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실용적인 언어 학습에 집중하였다. 전공 수업에서 영어로 모의 수업을 경험하거나, 근무 예정 태권도장의 자료를 사전에 받아 학습하는 등 실제 수업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준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수업의 완성도와 수련생과의 상호작용을 좌우하는 핵

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적, 비언어적, 문화적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수업 용어나 억양의 차이, 전화 상담 등에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세밀한 기술 설명이나 1:1 클래스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나 충돌을 겪으면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반복 학습, 관찰, 실천 대화를 통해 실천적인 해결 전략으로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관계 형성까지 포괄하는 역량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여전히 개인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과 태권도 사범 인증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훈련 강화, 예비 태권도 사범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귀국 태권도 사범의 사례 공유 체계 구축 등 구조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해외 태권도 사범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태권도 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외 태권도 사범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탐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해외 태권도 사범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국가 및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비교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 태권도 사범 간 경력 차이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일관된 기준으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해외 태권도 사범 경력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2025). 표준국어대사전.

2025년 7월 2일 발췌,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강정진(2019). 해외교육실습 프로그램 참여가 예비교사의 글로벌 교육역량 함양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35(1), 205-232.

강진아(2023). 초등교사가 체험한 교사-학부모 관계에 대한 자문화기술적 사례연구: 관계 규정과 관계 상황을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10(1), 1-28.

김옥주, 김도훈(2024). 골프지도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지도자신뢰, 운동몰입 및 운동지속의사의 구조적 관계. *융합과 통섭*, 7(2), 65-78.

김옥주, 김도훈(2024). 대학체육실기수업강사의 전문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의 학업적 흥미 및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9(1), 57-68.

김은주, 박지현(2021). 항공서비스전공 실습수업에서 교수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학습몰입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36(4),

187-206.

김주연. (2019). 태권도의 해외진출에서 민간외교 활동: 1960~1970년대 미국 내 한인 사범들을 중심으로. *대한무도학회지*, 21(4), 213-226.

김하영, 강은석. (2010). 문화 기술적 접근을 통한 외국인 태권도 수련생들의 태권도 수련에 대한 이해. *한국체육과학회지*, 19(2), 55-70.

김현숙, 강선모(2013). 내현적자기애와대학생활 적응과의관계에서의사소통능력의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0(1), 157-176.

김형환, 윤정희, 이혁기(2024). 태권도 사범의 해외 파견 경험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Journal of Sport and Dance Science*, 4(1), 1-14.

나운호, 장익영(2021). 해외 태권도 지도 경험을 통한 글로벌시민의식이 문화개방성 및 다문화역량에 미치는 영향. *국기원 태권도연구*, 12(1), 77-88.

박성언, 허재성(2017).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 태권도 전파에 관한 연구. *국기원태권도연구*, 8(4), 127-146.

변면섭, 염군양, 최경근(2025). 스피닝 강사의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운동 지속에 미치는 영향 - 재미의 조절 효과 중심으로. *문화예술융합연구*, 6(2), 351-365.

빙원철, 권혁정(2020). 해외진출 태권도 지도자 인턴십 프로그램 사례와 전략에 관한 연구. *국기원태권도연구*, 11(1), 237-254.

세계태권도연수원(2025). 2025년 7월 25일 발췌, <https://wta.kukkiwon.or.kr/kr?lang=kr>

유정아(2020). 대학교원의 강의준비태도와 학습자의 학습태도와의 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7), 357-377.

글로벌 현장에서 길러낸 태권도 사범의커뮤니케이션 역량

- 육명신, 박명신, 임영옥(2021).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육태도와 다문화 역량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4), 1479-1492.
- 윤혜영, 박재우(2020). 태권도 전공 대학생의 미국 불법인턴사범 경험과정의 의미와 가치 탐색.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3(2), 74-89.
- 이강훈(2019). 유아교사의 다문화 태도, 다문화 교수역량, 다문화 교수효능감 간의 구조관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269-292.
- 장채욱, 서수진(2021). 중학교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지도자신뢰 및 수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8), 267-277.
- 전난희, 김옥현(2019). 해외 태권도 지도자들이 인식하는 태권도의 세계화. *국기원태권도연구*, 10(4), 23-46.
- 정미영(2024). 비대면수업에서 교수자의 언어 및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학습자의 감정반응, 수업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7(10), 1190-1203.
- 정영경(2018).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교수효능감을 매개로 교사-다문화가정 학부모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국내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진혜원, 김유리(2023). 선배 멘토링을 활용한 진로교육이 전환기 지적장애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설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57(4), 51-78.
- 차경미(2021). 국어교육을 위한 역할모델의 유형과 국어교육에서의 역할모델 도입의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83-102.
- 천시우시우, 최은경(2024). 가상현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 개발의 실제-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시각으로 개발된 가상 시뮬레이션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95, 209-248.
- 최신혜, 양석준, 김형준(2016). 판매서비스 제공자의 언어적·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7(5), 1-32.
- 황유선, 김민규, 김주환(2009). 커뮤니케이션능력이개인의동기요인을매개로자기제시성향에미치는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48, 257-279.
- Lincoln, Y. S., & Guba, E. G.(2000). The only generalization is: There is no generalization. *Case study method*, 27, 44.
- World Taekwondo(2025). Vision, Mission, Strategy. 2025년 7월 2일 발췌, <https://m.worldtaekwondo.org/about-wt/about.html>

대한민국 國技, 태권도

2025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 대회

2025년 8월 30일(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9월 4일, 태권도의 날